



고부가 가공식품  
수출여건 조사



# 머 리 말

한·EU FTA, 한·미 FTA 등 세계화가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우리 농림수 산업을 둘러싼 개방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농림수산업의 성장 여건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수출 기회의 확대와 새로운 소득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한 우리 농림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을 발굴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aT는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75.9%(‘10년 기준 31억 달러)를 차지하는 고부가 가공식품 시장 진출 여건 조사를 통해 국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을 돕고자 과자류, 주류, 면류, 커피류, 아이스크림, 쌀의 6개 품목에 대하여 일본, 중국, 홍콩, 미국, 호주 시장 조사를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은 aT의 해외조직망(LA,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홍콩 aT센터)을, 호주는 KOTRA(시드니 KBC)의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일부 자료는 해외 전문 조사 기관의 시장 보고서를 활용하여 정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이 한국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한국 농식품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 6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수 출 이 사 **박종서**



## 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및 조사 요약 ..... 1

제 2 장. 중국 ..... 11

제 3 장. 호주 ..... 57





## 제 1 장. 조사개요 및 조사 요약

1. 조사 개요	3
2. 주요 조사내용 요약	5



## 1. 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75.9%(‘10년 기준 31억 달러)를 차지하는 가공식품 시장진출 여건 조사를 통한 수출확대 지원 강화
- 금년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규모화된 수출 추진을 위해 주요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수출 확대 필요

### ☐ 조사 품목

- 과자류, 주류(소주·맥주), 면류, 커피류, 아이스크림, 쌀 (6품목)

### ☐ 조사 국가

- 일본, 중국, 홍콩, 미국, 호주 (5개국)

국가 품목	일 본	중 국	홍 콩	미 국	호 주
과 자 류	수출 1위	수출 2위	-	-	-
주 류	수출 1위 (소주)	-	수출 1위 (맥주)	-	-
면 류	수출 2위	수출 3위	-	-	-
커피 류	-	수출 2위	-	-	수출 8위*
아이스크림	-	수출 2위	-	수출 1위	-
쌀	-	-	-	수출 2위	수출 1위

**☐ 주요 내용**

- 시장개요
- 생산동향
- 유통동향
- 소비동향
- 수출입동향
- 통관 및 수입검사
- 한국산 유통동향 및 경쟁국 동향
-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기간 : '11년 2~5월
- 조사 방법 : 해외aT센터, Kotra 등 활용
- Datamonitor 등 해외조사기관 보고서 일부 활용

**【 조사 대상국별 의뢰처 】**

<b>중 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 aT 센터 : 과자류, 면류</li> <li>○ 상하이 aT 센터 : 커피류, 아이스크림</li> </ul>
<b>일 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사카 aT 센터 : 과자류, 소주</li> <li>○ 동경 aT 센터 : 면류</li> </ul>
<b>홍 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aT 센터 : 맥주</li> </ul>
<b>미 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aT 센터 : 쌀, 아이스크림</li> </ul>
<b>호 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tra : 쌀, 커피류</li> </ul>

## 2. 주요 조사내용 요약

### ☐ 중국

#### 1. 시장개요

- 2003년 중국의 커피 소비량은 19,080톤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50,752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5% 증가율을 보였음. 향후 커피 소비량은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3년 중국 커피 소비량은 1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잠재적인 커피 소비자는 약 2~2.5억 명으로 이는 현재 세계 1위 커피 소비국인 미국 시장과 큰 차이가 없으며, 현재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커피 소비 인구의 비율은 낮지만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 생산동향

- 2010년 말까지 중국의 커피 재배 면적은 약 306.7km<sup>2</sup>인데, 이 중 운남(云南)의 커피 재배 면적은 약 300km<sup>2</sup>로 전국 커피 재배 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최대 커피 생산지로 부상함. 2008년과 2010년 1묘(667.2m<sup>2</sup>)당 생산량은 각각 81.7kg, 79.8kg임

#### 3. 유통동향

- 중국의 커피 생산 기업은 대부분 운남(云南)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품의 대부분이 수출 위주로 일부만 국내에서 소비됨. 생산 기업에 근접한 판매 시장의 경우 직접 판매를 하며, 거리가 먼 시장은 벤더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 해외 브랜드는 주로 수입상, 벤더를 통해 판매하는데 해외 제품의 점유율이 낮아 벤더의 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은 벤더와 공급업체가 전자 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하고 있음. 커피의 최종 소비 장소는 마트, 백화점 판매대, 커피숍 등임

### 4. 소비동향

- 소비자의 연령대별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데, 이 가운데 커피를 매우 좋아한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41~51세가 30%, 20~30세가 20%를 차지함. 한편 커피를 선택하는 소비자 중 남성은 55%, 여성은 45%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음
- 독특한 맛을 가진 커피는 젊은 소비자가 매우 선호하여 중년층과 젊은이들이 커피제품의 주요 소비층임. 또한 여성 소비자에 비해 남성 소비자수가 훨씬 많고, 구매자도 남성이 더 많이 차지함. 현재 커피 소비자는 소득이 높은 화이트칼라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대학생으로 나타남
- 단, 화이트칼라, 대학생 등 신규 소비층도 커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가 비교적 불안정한 특징이 있어 지속적인 소비력을 기대하기는 힘들. 커피의 고정적인 소비자는 주로 중년 남성 지식층이며, 이들은 브랜드 충성도 또한 매우 높아서 신규 브랜드는 거의 선택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5. 수출입동향

- 커피 관련 HS코드는 09011100(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지 않은 커피), 09011200(카페인을 제거하고 볶지 않은 커피), 09012100(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은 커피), 09012200(카페인을 제거하고 볶은 커피)임

- 4종의 HS코드 중 09011100(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지 않은 커피) 품목의 수입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0년 품목별 점유율은 각각 65.3%, 0.4%, 23.2%, 11.1%임
- 중국의 09011100 커피는 베트남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며, 2010년 점유율은 78.5%에 달함.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7.2%), 브라질(5.4%), 우간다(3.1%) 순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음

## 6. 한국산 유통동향 및 경쟁국 동향

- 한국산 커피는 젊은 소비자가 주로 선호하며, 100개입 포장, 맥심 3 in 1 커피 제품의 판매량이 비교적 많은 편임. 현재 한국산 커피는 대부분 상하이, 산둥, 광저우 등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시장성이 있으나, 북쪽 지역의 소비자는 아직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음

## 7.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 커피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소비자가 커피의 향과 품질을 가장 중요시 여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반드시 완벽한 품질 보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을 보장해야만 시장에서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함
- 현지 바이어 의견에 의하면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제품 브랜드와 맛을 향상하고 가격을 적절히 조절하여 더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는 오리지널 맛의 팩형 제품을 선호한다고 함. 현재 한국 제품 중 맥스웰 커피가 주요 제품으로 팩형 3 in 1이 인기 제품임
- 유통 경로가 독점대리, 다점대리, 자체 소매 방식 등으로 매우 다양함. 여러 판매상이 함께 운영하여 제품 판매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중개상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판매상의 이익을 보장하고 최종 소비자 구매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음



## ☐ 호주

### 1. 시장개요

- 호주의 인스턴트커피 시장 규모는 연간 A\$4억 2500만 불 규모로, 여러 브랜드 중 Nescafe가 7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선두 주자임. 그러나 최근에는 인스턴트커피보다 Ground Coffee의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호주의 커피 로스팅, 유통, 도매 산업의 매출 규모는 연간 100억 호주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호주 현지의 생산량이 매우 미미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입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탈리아로부터의 커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 국가가 다양한 편이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미미함

### 2. 유통동향

- 인스턴트커피의 경우, Nescafe 브랜드가 호주 인스턴트커피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생산업체인 Nestle사는 호주 시드니에 진출해 있으며, 이 업체가 직접 생산품을 현지 대형 할인매장이나 식품점 등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Ground Coffee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수입업체들이 직접 커피 매장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커피를 판매는 동시에 다른 커피 매장이나 식품 판매점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됨

### 3. 소비동향

- 커피 총 소비량의 80% 규모인 A\$5억 1600만 달러 상당을 인스턴트 커피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Roast와 Ground Coffee가 A\$9600만 달러 규모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최근 들어 편리한 가정용 커피메이커가 다양하게 등장함에 따라 호주 국민들이 인스턴트커피보다는 고품질의 Roast 또는 Ground 커피를 즐기는 경향이 높아져, 2002년 이후에는 전체 커피 시장 규모의 28%까지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4. 수출입동향

- 호주는 실질적으로 커피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2009년도 호주 전체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2.77% 늘어난 미화 2억 1600만 달러 규모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가별로는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15.06%인 미화 3343만 달러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파푸아뉴기니(13.19%), 브라질(12.5%), 인도네시아(9.08%), 베트남(8.81%) 등이 잇고 있음
- 2009년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미화 7만 달러 규모로서,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3%로 아주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5. 통관 및 수입검사

- 호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나 세균에 대한 동식물들의 면역성이 약한 관계로, 수입품 중에서도 특히 동식물에 대한 검역이 무

척 까다로운 상황임. 이에 따라 전체 수입식품 검역 절차도 무척 까다로운데, 호주의 수입식품 검역은 농수산부 산하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수행하고 있음

## 6. 한국산 유통동향 및 경쟁국 동향

- 전반적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커피 수입량은 매우 미미하며,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 2008년 0.02%, 가장 최근인 2009년은 0.03%로 파악됨
- 기본적으로 한국산 커피는 인스턴트커피만 수입되고 있으며, 전량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음. 즉, 호주 현지인 시장에서 한국산 커피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으며 일부러 찾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7. 한국산 수출확대방안

- 커피 시장은 새로운 업체가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분야임
  - 이는 Nestle를 비롯한 외국 대형 업체와 이탈리아 등의 중소 커피 수입업체들이 시장을 오래 전부터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임
- 현실적으로 기존 제품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제품으로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한 광고 활동 또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스폰서 활동 등을 통한 마케팅이 오랜 기간 선행되어 한국 제품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이 필수일 것으로 판단됨

## 제 2 장. 중 국

1. 시장개요	13
2. 생산동향	15
3. 유통동향	17
4. 소비동향	21
5. 수출입동향	29
6. 통관 및 수입검사	38
7. 한국산 동향 및 경쟁국 동향	42
8.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45
9. 기타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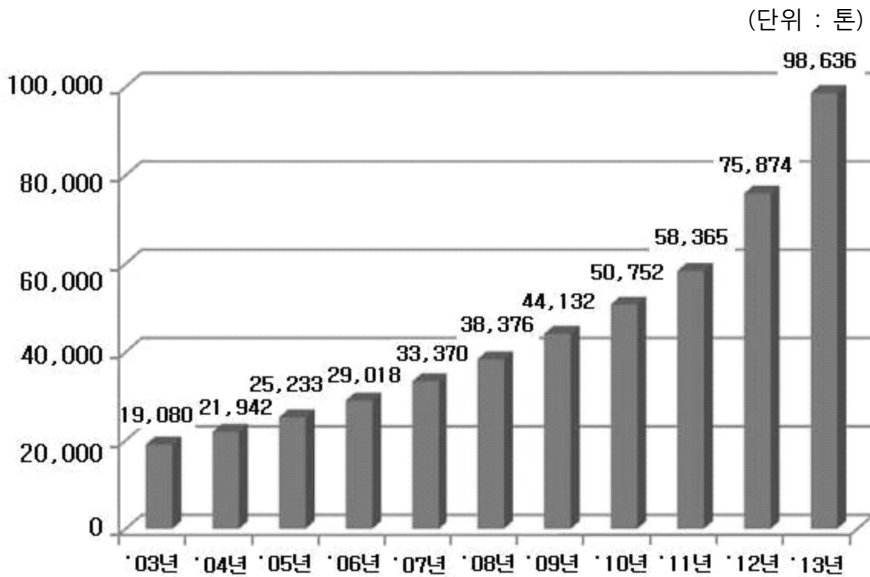


## 1. 시장개요

### 1. 시장규모 및 시장여건

#### 가. 시장규모

[ 중국 커피 소비량 및 전망 ]



자료원 : 운남중합커피유한공사(云南中合咖啡有限公司)

주 : 2011-2013년 수치는 예측치임

- 2003년 중국의 커피 소비량은 19,080톤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50,752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였음. 향후 커피 소비량은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3년 중국 커피 소비량은 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잠재적인 커피 소비자는 약 2~2.5억 명으로 이는 현재 세계 1위 커피 소비국인 미국 시장과 큰 차이가 없으며, 현재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커피 소비 인구의 비율은 낮지만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커피 시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스턴트커피, 즉석 커피 음료, 원두커피임. 현재 중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5만 톤 내외이며, 이 중 인스턴트커피(1회용 포장커피)가 60%를 차지하고 일반커피는 3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기타 커피임

### 나. 시장여건

- 현재 중국 커피 시장은 크게 두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인스턴트커피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스타벅스, 코스타와 같은 커피전문 체인점임. 후자는 중국식 레스토랑 및 전통 찻집과 차별화된 분위기로 젊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음
- 커피 음료는 향후 주요 제품 중 하나로 발전하겠지만 시장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는 커피를 마시는 소비층의 대부분이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재 중국 중산층이 한 산업을 지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2. 생산동향

### 1. 생산동향

- 2010년 말까지 중국의 커피 재배 면적은 약 306.7km<sup>2</sup>인데, 이 중 운남(云南)의 커피 재배 면적은 약 300km<sup>2</sup>로 전국 커피 재배 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최대 커피 생산지로 부상함

[ 2008-2010년 중국 커피 재배 면적 및 생산량 ]

구분	면적(km <sup>2</sup> )			생산량(만 톤)		
	전국(A)	운남(B)	B/A(%)	전국(A)	운남(B)	B/A(%)
2008년	233.3	226.7	97.1	2.86	2.8	97.9
2009년	300.0	293.3	97.8	3.27	3.2	97.9
2010년	306.7	300.0	97.8	3.67	3.6	98.1

자료원 : 운남성커피행업협회(云南省咖啡行业协会)

- 위 표에 따르면 커피의 총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1묘(666.7m<sup>2</sup>)당 단위 생산량은 하락했음. 2008년과 2010년 1묘당 생산량은 각각 81.7kg, 79.8kg임
- 커피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가뭄으로, 가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3년 내에 재배되는 묘목이기 때문에 3년 후의 커피 생산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 생산전망

- 중국 광둥(广东), 해남(海南)에서는 주로 중간 크기의 커피 열매를 재배하며, 운남(云南)에서는 주로 작은 크기의 커피 열매를 재배함. 이 외에 복건(福建), 광서(广西) 등 지역에서도 소량으로 재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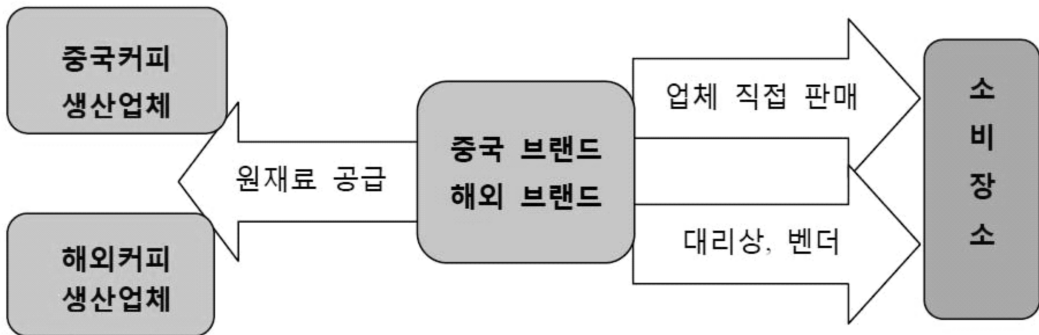


- 실제 생산 경험에 따르면 중국 재배 지역의 자연 조건은 커피 성장에 적합하며, 세심한 관리를 통해 풍작을 거둘 수 있다고 함
- 또한 운남중합커피유한공사에 따르면 운남(云南)의 커피 재배에 적합한 토지 자원 면적은 433.4km<sup>2</sup>이며, 최대 생산량은 6만 5천 톤으로 예상됨. 운남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커피 재배 면적을 666.7km<sup>2</sup>로 넓힐 것을 계획했으며, 생산 면적은 533.4km<sup>2</sup>, 생산량은 10만 톤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매우 큰 커피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중국 기업을 이끌어 가면서 중국 기업은 커피 산업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고, 재배 면적 확대를 장려해 가공 기술을 개선하여 품질을 높이는 등 커피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음
- 운남덕홍후곡커피유한공사(云南德宏后谷咖啡有限公司)는 중국의 가장 큰 인스턴트커피 생산라인(3,00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인스턴트커피 만 톤 생산라인 프로젝트를 새로 가동하였음. 이는 중국 커피 산업 구조가 변화될 것을 의미함

### 3. 유통동향

#### 1.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 커피 유통경로 ]



자료원 : 운남커피장(云南咖啡厂), 운남중합커피유한공사(云南中合咖啡有限公司)

- 중국의 커피 생산 기업은 대부분 운남(云南)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품의 대부분은 수출 위주로 일부만 국내에서 소비됨. 생산 기업에 근접한 판매시장의 경우 직접 판매를 하며, 거리가 먼 시장은 벤더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 해외 브랜드는 주로 수입상, 벤더를 통해 판매하는데 해외 제품의 점유율이 낮아 벤더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은 벤더와 공급업체가 전자 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하고 있음. 커피의 최종 소비 장소는 마트, 백화점 판매대, 커피숍 등임

## 2. 유통형태 및 유통규격

### [ 중국 커피 유통 현황 ]

구분					
제품명	雀巢咖啡1+2原味	雀巢咖啡1+2原味	雀巢咖啡1+2特浓	雀巢咖啡伴侣	雀巢咖啡醇品
생산지	广东省东莞市南城区	广东省东莞市南城区	广东省东莞市南城区	广东省东莞市南城区	广东省东莞市南城区
가격	13.50 위안	35.80 위안	41.50 위안	29.00 위안	68.00 위안
제조사	Nestlé	Nestlé	Nestlé	Nestlé	Nestlé
규격	140g(11개)	624g(42+6개)	559g(38+5개)	400g	100g
판매처	슈퍼마켓	슈퍼마켓	슈퍼마켓	슈퍼마켓	슈퍼마켓
유통기한	24개월	24개월	24개월	24개월	24개월

구분					
제품명	雀巢咖啡1+2原味	雀巢咖啡珍选礼盒	咖啡伴侣(大礼盒)	麦斯威尔特浓	麦斯威尔特浓
생산지	广东省东莞市南城区	广东省东莞市南城区	广东省东莞市南城区	广东省东莞市	广东省东莞市
가격	82.00 위안	230.00 위안	108.00 위안	39.00 위안	58.00 위안
제조사	Nestlé	Nestlé	Nestlé	kraft foods	kraft foods
규격	1.2kg	265g	2.9kg	494g(38개)	780g(60개)
판매처	슈퍼마켓	슈퍼마켓	슈퍼마켓	슈퍼마켓	슈퍼마켓
유통기한	3년	3년	3년	24개월	24개월

- 유통형태는 주로 인스턴트커피, 원두커피콩, 원두커피가루 등임
- 유통포장은 주로 팩형, 페트병, 통, 상자 등임
- 유통규격
  - 소매 : 20팩\*12g/봉지, 100팩\*12g/봉지 등
  - 도매 : 원두커피콩의 최소 주문량은 100kg, 즉 10상자(포장규격 : 1박스\*20팩\*500g), 인스턴트커피의 최소 주문량은 1,200캔, 즉 100상자(포장규격 : 1박스\*12캔\*350g)임

### 3. 가격동향

- 운남성커피업계협회(云南省咖啡行业协会)에 따르면 2010년 초 운남성 커피 원두의 매입가는 1kg당 약 18위안임. 2010년 10월에는 27-28위안에 달했고 2011년 1월에는 31위안으로 상승했으며, 2011년 2월 15일에는 34.5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최근 커피 원두의 매입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은 뉴욕 선물 가격 상승의 영향과 업체들의 원재료 구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임
- 운남중합커피유한공사(云南中合咖啡有限公司)를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제품 도매가격(17% 부가가치세 포함, 운송비 불포함)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음

[ 중국 커피 도매가격 현황 ]

구분	커피 종류	규격	가격(위안)
볶은 커피원두	블루 마운틴	500g/봉지	50.00
볶은 커피원두	만델링	500g/봉지	50.00
볶은 커피원두	스미야끼 커피	500g/봉지	49.00
볶은 커피원두	이탈리아	500g/봉지	47.00
볶은 커피원두	콜롬비아	500g/봉지	47.00
볶은 커피원두	브라질	500g/봉지	47.00
볶은 커피원두	모카	500g/봉지	47.00
볶은 커피원두	하와이안 코나	500g/봉지	47.00
볶은 커피원두	AA급 운남 커피	500g/봉지	50.00
커피믹스	블루 마운틴	350g/캔	22.50
커피믹스	라떼	350g/캔	22.50
커피믹스	조찬 커피	350g/캔	22.50
커피믹스	카푸치노	350g/캔	2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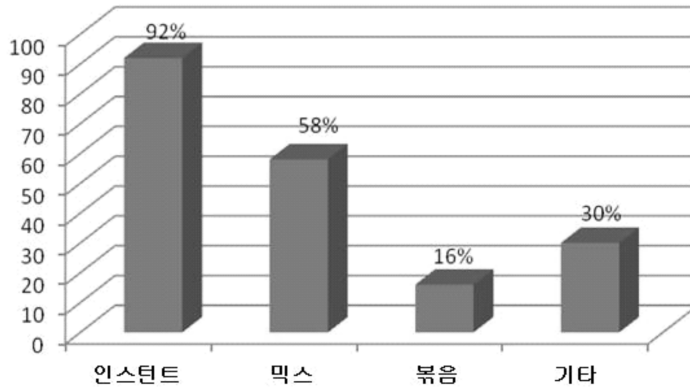
자료원 : 운남중합커피유한공사(云南中合咖啡有限公司)

## 4. 소비동향

### 1. 구매동향

#### 가. 소비형태

[ 중국 소비자의 커피 소비 형태 ]



자료원 : 중국커피망(中国咖啡网), 문권성망(问卷星网)

-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 제품은 주로 인스턴트커피, 3 in 1 커피, 원두커피, 커피음료 등임. 중국커피망과 문권성망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92%의 소비자가 인스턴트커피를 마신 적이 있고 58%가 3 in 1 커피, 16%가 원두커피, 30%가 기타 커피음료를 마신 적이 있다고 함
- 인스턴트커피와 3 in 1 커피는 초급 소비자 분야에서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는 오리지널 맛에 가깝고 편리하게 마실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마실 때 커피 문화의 우아함이나 따뜻한 느낌 등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여 소비자 대부분이 가끔 마시는 경향을 보임

## 나. 1인당 소비량

- 커피연쇄가맹시장분석(咖啡连锁加盟市场分析) 자료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매년 1인당 커피 소비량은 500잔이 넘고,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는 1,000잔이 넘음. 일본은 매년 1인당 커피 소비량이 200잔, 한국은 140잔임
- 그러나 중국은 매년 1인당 커피 소비량이 4잔에 불과하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대도시에서도 매년 1인당 커피 소비량이 20잔에 불과함. 따라서 중국의 커피 소비시장은 향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다. 주요 구매층

- 소비자의 연령대별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데, 이 가운데 커피를 매우 좋아한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41~51세가 30%, 20~30세가 20%를 차지함. 한편 커피를 선택하는 소비자 중 남성은 55%, 여성은 45%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음
- 독특한 맛을 가진 커피는 음료제품으로 젊은 소비자가 매우 선호하여 중년층과 젊은이들이 커피제품의 주요 소비층임. 또한 여성 소비자에 비해 남성 소비자수가 훨씬 많고, 구매자도 남성이 더 많이 차지함. 현재 커피 소비자는 소득이 높은 화이트칼라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대학생으로 나타남
- 화이트칼라, 대학생 등 신규 소비층도 커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가 비교적 불안정한 특징이 있어 지속적인 소비력을 기대하기는 힘들. 커피의 고정적인 소비자는 주로 중년 남성 지식층이며, 이들은 브랜드 충성도 또한 매우 높아서 신규 브랜드는 거의 선택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라. 선호제품

## ☐ 브랜드 선호도

[ 주요 커피 브랜드 시장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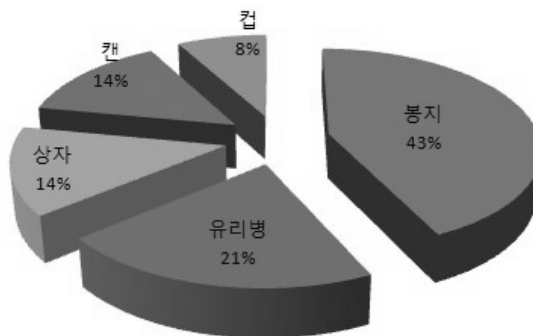
브랜드	시장점유율(%)	제품 형태
Nestlé	75	인스턴트커피
Maxwell	10	인스턴트커피
Starbucks	5	fresh-ground coffee
UBC	5	fresh-ground coffee
기타	5	--

자료원 : 중국커피망(中国咖啡网), 문권성망(问卷星网)

- 현재 중국 시장의 커피 브랜드는 네슬레, 맥스웰, 양안, 스타벅스, UBC, 블루마운틴, UCC, TW 등 해외 유명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음
- 네슬레는 1908년부터 중국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위의 표를 통해 네슬레 커피의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음. 동시에 기타 커피 브랜드의 시장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포장 선호도

[ 커피 포장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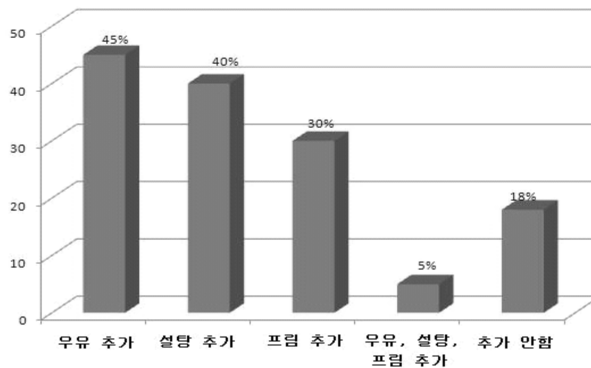
자료원 : 중국커피망(中国咖啡网), 문권성망(问卷星网)



- 봉지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자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고 유리병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21%, 상자와 캔, 컵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각각 14%, 14%, 8%임. 이를 통해 소비자가 봉지 포장과 유리병 포장의 커피 제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맛 선호도

[ 커피 맛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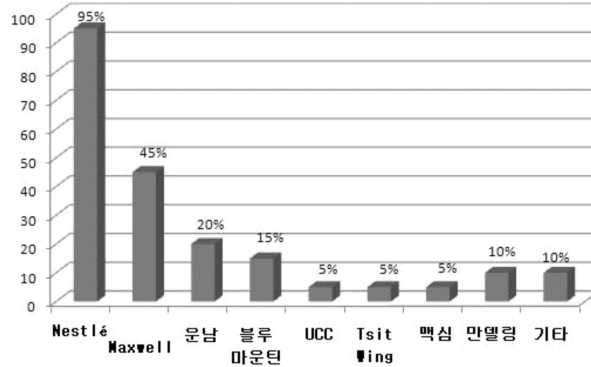
자료원 : 중국커피망(中国咖啡网), 문권성망(问卷星网)

- 음용 시 커피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소비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45%에 달함. 설탕 추가를 좋아하는 소비자는 40%로 그 뒤를 이음. 프리마를 넣고 마시는 소비자는 30%, 우유, 설탕, 프리마를 모두 넣고 마시는 소비자는 5%에 불과하였으며, 아무것도 넣지 않는 소비자는 18%로 나타남. 대부분의 소비자는 커피를 마실 때 우유, 설탕, 프리마 등을 넣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무것도 넣지 않는 소비자는 총 커피 소비자 가운데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함

## 수입산 국가별 선호도

### 1) 국가별 인지도

[ 제품별 인지도 ]



자료원 : 중국커피망(中国咖啡网), 문권성망(问卷星网)

- 네슬레 제품이 커피제품 가운데 판매량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소비자가 네슬레 커피를 마실 때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 이름 때문임
  - 1991년 미국란통(兰通)회사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슬레 커피는 세계 10대 유명 브랜드 중 하나로 선정됐음. 현재 중국 시장에서 네슬레 브랜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임
  -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브랜드가 중국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 폭이 더욱 다양해지는 것을 의미함

2) 국가별 주요 특징

[ 국가별 제품 특징 ]

국가(지역)	관련 내용	브랜드	제품 특징
대만	산이 많고 뚜렷한 장마철이 있어 커피 성장에 적절함	양안	우수한 원두기술과 향기로운 풍미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UBC	
브라질	커피 생산량이 세계 총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전체 커피 거래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커피 생산국 1위를 자랑함	브라질	커피의 향이 부드럽고 약간의 새콤한 맛과 쓴맛이 있어 중성 커피의 대표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드러운 커피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종류임
콜롬비아	세계 2위 생산국이며,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의 12%에 달해 커피 원두 품질이 매우 우수함	콜롬비아	커피의 질감이 아름답고 향이 풍부하며 독특함. 그대로 마시거나 혼합해서 마셔도 매우 적절함
자메이카	생산된 커피 품질이 양극화되어 있어, 낮은 지형에서 재배된 커피의 품질이 보통인데 비해 높은 곳에서 재배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커피는 세계 최고급 제품으로 선정되어 매우 유명하고 비쌌	블루마운틴	블루마운틴은 모든 커피의 장점을 지닌 커피로 맛이 진하고 부드러움. 또한 커피의 달콤함, 새콤함, 쓴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전혀 쓰지 않고 신맛이 적절함. 일반적으로 그대로 마시는데 생산량이 매우 적어 가격이 비쌌
예멘	예멘은 세계 최초로 커피를 대규모로 재배한 국가로서 오랜 역사를 지님	모카	부드럽고, 달콤하고, 맥아, 견과, 포도주, 초콜릿, 기타 향료가 혼합된 독특한 맛이 나며 혼합커피로 사용될 수 있음
과테말라	중양 고지대에서 재배되며, 세계에서 맛이 가장 독특한 커피임	과테말라	산의 농도가 높고 맛이 풍부하며 부드럽고 약간의 탄내가 남
인도네시아	주요 산지는 수마트라, 자와, 술라웨시 등이고 90%가 로부스타종으로 이는 세계 1위 품질의 커피임	만델링	향기롭고 진하며 약간 쓴맛도 있어 맛이 매우 강하지만 부드럽고 신맛이 없어 인도네시아산 커피 중에서도 최고로 꼽힘
미국	하와이 서부 화산에서 재배되며 미국의 유일한 커피 종류임	하와이	맛이 진하며 향이 강해 새콤하고 독특함. 품질이 매우 안정적임
		맥스웰	인스턴트커피로 여러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음
		스타벅스	현재 중국에 400곳 이상의 점포를 보유한 커피체인점으로 제품 가격이 높은 편임
스위스	유럽 풍미의 중심인 스위스의 커피는 유럽 커피의 진수임. 스위스 커피는 프랑스의 로맨틱, 독일의 엄격함, 이탈리아의 창의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커피, 우유, 설탕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맞춤	네슬레	세계 유명 브랜드로 1초당 3,200잔이 판매된다는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가 있음

자료원 : <http://past.tianjindaily.com.cn/kf/kf-chandi.htm>

## 2. 소비전망

- 커피는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으며, 이미 세계 3대 음료 중의 하나로 성장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커피 소비는 이미 트렌드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문화요소로 자리 잡음. 세계 커피 소비량은 코코아와 차 각각의 약 3배에 해당됨
  - 세계커피시장개황 및 전망분석(世界咖啡市场概况与前景分析)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세계 커피 소비량은 매년 1.5%의 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원두커피와 같은 특수커피의 성장 속도는 8%에 달함
- 대형 글로벌 기업 제품의 판매량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수한 시장 개척 성과를 거둠
  - 이처럼 대형 커피 생산·가공 기업이 중국 시장의 커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젊은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함. 또한 가격을 더 낮춘다면 인스턴트커피의 인기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 네슬레사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인스턴트커피의 연 증가율은 40%, 전통커피의 연 증가율은 30%에 달하며, 향후 중국의 커피소비 전망은 긍정적임
  - 20세기 '70~'80년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중국인이 커피를 소비하여 향후 커피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 운남중합커피유한공사(云南中合咖啡有限公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커피 소비는 세계 커피 소비의 상승 속도에 비해 훨씬 빠른 15%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커피 문화가 유행함에 따라 커피는 점점 더 젊은층의 사랑을 받을 것임
-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임
  - 2020년 중국의 모든 사람이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마신다고 가정할 경우, 커피원두 시장만 매년 500억불에 이르러 전체 산업 규모가

수천억불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전망으로 커피산업은 투자자의 낙원, 창업자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현재 중국의 커피 소비는 여전히 트렌드 소비 단계에 머물러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임.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커피 소비 수준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 5. 수출입동향

### 1. 수출입 통계 및 국가별 수입 동향

#### 가. 수출입 통계

##### 1) 커피 관련 HS코드 현황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지 않은 커피 : 09011100
- 카페인을 제거하고 볶지 않은 커피 : 090112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은 커피 : 09012100
- 카페인을 제거하고 볶은 커피 : 09012200

#### [ 2008-2010년 중국 커피 수출입 현황 ]

09011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지 않은 커피				
구분	수입물량(kg)	수입금액(달러)	수출물량(kg)	수출금액(달러)
2008	18,745,752	40,878,967	21,302,274	60,167,530
2009	19,839,656	33,688,615	32,150,375	77,724,977
2010	27,632,802	45,925,132	31,855,570	95,257,774

09011200 카페인을 제거하고 볶지 않은 커피				
구분	수입물량(kg)	수입금액(달러)	수출물량(kg)	수출금액(달러)
2008	19,541	72,579	--	--
2009	27,549	75,301	20	20
2010	83,667	257,771	--	--

09012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은 커피				
구분	수입물량(kg)	수입금액(달러)	수출물량(kg)	수출금액(달러)
2008	2,049,740	17,676,123	1,034,635	7,907,975
2009	1,331,036	12,045,950	472,870	3,470,032
2010	1,761,876	16,337,545	1,021,039	6,810,391

09012200 카페인을 제거하고 볶은 커피				
구분	수입물량(kg)	수입금액(달러)	수출물량(kg)	수출금액(달러)
2008	885,247	6,655,300	190,851	612,070
2009	591,689	4,999,505	110,300	295,408
2010	830,522	7,796,931	31,548	130,591

합계				
구분	수입물량(kg)	수입금액(달러)	수출물량(kg)	수출금액(달러)
2008	21,700,280	65,282,969	22,527,760	68,687,575
2009	21,789,930	50,809,371	32,733,565	81,490,437
2010	30,308,867	70,317,379	32,908,157	102,198,756

자료원 : 해관총서(海關總署)

- 4가지의 HS코드 중 09011100 품목의 수입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0년 품목별 점유율은 각각 65.3%, 0.4%, 23.2%, 11.1%임

### 나. 국가별 수입 동향

#### [ 2008-2010년 국가별 커피 수입 현황(09011100) ]

2008년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베트남	15,601,200	32,498,760	온두라스	5,037	16,516
인도네시아	1,521,299	3,656,214	케냐	4,997	24,648
콜롬비아	532,736	1,591,048	도미니카	4,648	21,813
브라질	384,505	1,108,084	이탈리아	3,477	18,089
우간다	256,440	624,538	필리핀	2,400	7,346
에티오피아	162,849	512,197	페루	1,313	7,231
코스타리카	95,707	317,975	자메이카	910	20,200
르완다	57,660	134,203	탄자니아	120	389
니카라과	38,032	82,974	아이티	120	408
잠비아	19,080	55,450	엘살바도르	69	276
동티모르	18,420	58,562	파푸아뉴기니	60	306
과테말라	15,927	61,753	파나마	60	168
대만	12,640	20,428	독일	48	48
미국	5,998	39,343	<b>합계</b>	<b>18,745,752</b>	<b>40,878,967</b>

자료원 : 해관총서(海關總署)

2009년			2010년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베트남	17,130,771	27,511,335	베트남	23,635,652	36,029,319
인도네시아	1,227,712	2,107,185	인도네시아	1,822,732	3,314,319
브라질	855,485	2,184,785	브라질	855,780	2,460,564
콜롬비아	202,344	666,211	우간다	549,260	1,428,935
에티오피아	120,642	361,577	콜롬비아	214,599	878,874
탄자니아	73,535	141,097	에티오피아	157,948	512,351
이탈리아	45,060	192,683	이탈리아	109,943	442,582
과테말라	38,708	145,134	과테말라	90,718	346,140
우간다	21,060	30,318	동티모르	38,989	84,056
코스타리카	19,807	72,377	탄자니아	36,660	111,979
파푸아 뉴기니	18,420	49,788	대만	32,997	58,963
르완다	18,060	11,868	르완다	19,200	7,227
멕시코	17,211	23,976	파푸아 뉴기니	18,492	63,456
말라위	11,940	32,841	라오스	18,000	14,400
한국	9,708	15,242	온두라스	15,455	60,600
인도	6,586	19,441	페루	4,279	16,985
온두라스	5,244	16,073	일본	2,985	32,386
도미니카	5,235	23,440	도미니카	2,250	10,456
카메룬	3,060	8,802	케냐	1,721	9,774
네팔	1,500	4,200	코스타리카	1,381	6,089
자메이카	1,415	39,679	미국	612	11,705
미국	1,055	6,986	파나마	556	575
니카라과	1,029	5,264	푸에르토리코	504	1,204
대만	960	1,476	멕시코	392	2,047
페루	898	5,048	자메이카	350	13,327
케냐	539	3,437	프랑스	300	1,037
파나마	384	1,704	아이티	240	960
도미니카연방	300	2,523	볼리비아	150	570
아이티	120	336	인도	150	420
잠비아	120	550	엘살바도르	138	414
예멘	120	543	에과도르	125	848
에과도르	116	469	카메룬	110	1,017
엘살바도르	69	193	니카라과	69	193
동티모르	60	168	호주	40	911
짐바브웨	60	168	예멘	20	56
카보베르데	60	168	필리핀	5	393
공고	60	168	<b>합계</b>	27,632,802	45,925,132
태국	50	140			
볼리비아	50	140			
프랑스	43	626			
호주	40	400			
필리핀	20	56			
<b>합계</b>	19,839,656	33,688,615			



- 중국의 09011100 커피는 베트남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며 2010년 점유율은 78.5%에 달함.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7.2%), 브라질(5.4%), 우간다(3.1%)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 2008-2010년 국가별 커피 수입 현황(09011200) ]

2008년			2009년			2010년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엘살바도르	17,250	57,754	말라위	22,140	52,481	우간다	79,200	228,132
말라위	1,140	4,405	한국	2,250	10,800	미국	3,295	22,143
우간다	1,000	8,389	독일	2,112	7,358	한국	1,000	4,800
독일	150	2,011	잠비아	500	2,300	말라위	60	280
호주	1	20	일본	158	147	케냐	58	1,056
합계	19,541	72,579	대만	100	147	이탈리아	54	1,360
--	--	--	스페인	100	530	합계	83,667	257,771
--	--	--	브라질	69	527	--	--	--
--	--	--	콜롬비아	60	162	--	--	--
--	--	--	인도네시아	60	849	--	--	--
--	--	--	합계	27,549	75,301	--	--	--

자료원 : 해관총서(海關總署)

- 중국의 09011200 커피는 우간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며, 2010년 점유율은 88.5%에 달함. 그 다음으로 미국(8.6%), 한국(1.9%), 이탈리아(0.5%)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 [ 2008-2010년 국가별 커피 수입 현황(09012100) ]

2008년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미국	1,593,926	12,971,199	태국	2,454	13,098
이탈리아	132,115	1,788,855	중국	2,280	5,940
홍콩	100,567	624,215	벨기에	1,548	19,046
대만	36,224	213,614	인도네시아	1,354	4,916
영국	26,419	361,441	브라질	1,260	46,640
베트남	23,860	61,147	캐나다	924	8,764
호주	23,230	209,118	이스라엘	906	5,476
일본	22,248	208,859	자메이카	873	32,901
스위스	21,266	626,539	말레이시아	600	1,100
독일	12,607	114,648	파푸아뉴기니	504	9,059
콜롬비아	9,656	78,703	코스타리카	408	574
오스트리아	8,921	55,364	마카오	408	6,022
프랑스	7,194	73,485	네덜란드	121	569
인도	7,025	61,351	아랍에미리트	30	103
스페인	6,887	49,362	한국	25	217
싱가포르	3,900	23,798	<b>합계</b>	<b>2,049,740</b>	<b>17,676,123</b>

2009년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미국	798,331	6,649,635	폴란드	1,710	10,569
이탈리아	165,279	1,954,014	브라질	935	4,042
대만	84,598	595,220	캐나다	740	5,406
영국	56,165	624,596	말레이시아	612	1,836
인도네시아	46,837	93,377	자메이카	542	18,349
홍콩	44,179	276,763	잠비아	500	3,000
독일	26,475	257,072	뉴질랜드	290	5,846
호주	25,990	198,280	멕시코	254	1,513
스위스	19,635	901,148	포르투갈	120	487
인도	17,850	53,711	네덜란드	58	1,429
일본	11,103	80,312	코스타리카	18	511
프랑스	7,924	75,297	레바논	10	317
콜롬비아	6,427	75,524	스웨덴	3	363
스페인	6,205	65,489	파나마	1	87
마카오	3,698	46,973	과테말라	0.2	44
오스트리아	2,696	29,676	<b>한국</b>	<b>0.1</b>	<b>13</b>
싱가포르	1,851	15,051	<b>합계</b>	<b>1,331,036</b>	<b>12,045,950</b>

2010년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미국	1,050,418	8,537,520	멕시코	2,330	14,948
이탈리아	219,440	2,309,546	네덜란드	1,738	12,376
대만	112,289	815,469	베네수엘라	1,490	8,383
영국	82,360	1,022,982	케냐	1,207	11,241
홍콩	44,199	279,222	에티오피아	1,120	8,651
독일	41,876	392,101	자메이카	1,040	35,090
인도네시아	40,984	318,326	그리스	800	2,069
스위스	30,242	1,453,574	뉴질랜드	736	7,720
호주	27,146	260,612	벨기에	600	3,525
프랑스	21,248	169,152	한국	418	4,483
콜롬비아	17,490	139,409	포르투갈	240	4,964
일본	15,287	134,543	캐나다	233	2,443
스페인	10,215	96,884	온두라스	164	301
코스타리카	8,309	34,435	파푸아뉴기니	120	2,366
마카오	6,226	61,129	벨리즈	95	500
오스트리아	5,798	58,003	태국	62	2,027
브라질	5,086	44,912	에콰도르	30	70
베트남	4,232	32,976	잠비아	24	200
쿠바	3,698	27,673	말레이시아	20	336
싱가포르	2,866	27,384	합계	1,761,876	16,337,545

자료원 : 해관총서(海關總署)

- 중국의 09012100 커피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며, 2010년 점유율은 52.3%에 달함.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14.1%), 스위스(8.9%), 영국(6.3%)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 [ 2008-2010년 국가별 커피 수입 현황(09012200) ]

2008년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이탈리아	180,926	2,006,600	싱가포르	2,086	18,378
미국	103,931	597,665	벨기에	1,927	29,071
독일	99,106	775,251	오스트리아	1,596	21,899
브라질	90,430	374,951	한국	1,278	12,884
일본	61,380	521,073	이스라엘	1,109	5,147
대만	56,383	324,720	태국	516	7,554
인도	52,500	202,731	파푸아 뉴기니	504	9,059
스웨덴	41,948	296,739	자메이카	430	23,256
호주	40,667	232,972	코스타리카	341	2,423
프랑스	32,254	262,425	스페인	207	2,433
네덜란드	29,704	227,714	홍콩	192	1,461
베트남	21,800	80,766	에티오피아	156	2,520
스위스	14,109	302,692	뉴질랜드	70	874
콜롬비아	10,600	62,189	아랍에미리트	63	881
필리핀	10,000	70,360	인도네시아	34	4,798
영국	9,290	95,176	멕시코	31	621
말레이시아	8,175	31,761	덴마크	12	247
터키	4,731	6,319	시리아	2	12
폴란드	3,654	24,152	합계	885,247	6,655,300
캐나다	3,105	15,526	--	--	--

2009년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이탈리아	192,325	2,017,226	이스라엘	1,368	11,611
미국	80,828	454,899	덴마크	750	4,413
대만	58,514	321,122	자메이카	735	45,584
일본	50,272	484,986	스페인	616	5,412
호주	34,882	212,052	에콰도르	402	6,528
프랑스	30,875	250,679	캐나다	360	767
독일	30,814	334,819	뉴질랜드	352	7,498
터키	23,591	33,500	태국	329	4,425
네덜란드	22,026	176,943	홍콩	312	3,085
브라질	14,762	96,378	그리스	296	960
한국	7,648	99,492	헝가리	268	3,013
콜롬비아	6,006	52,246	과테말라	171	1,733
필리핀	6,000	41,436	케냐	102	1,871
스웨덴	4,512	29,065	인도네시아	92	4,518

## 커피

영국	4,421	36,580	르완다	57	1,051
스위스	4,151	157,317	에티오피아	50	1,107
싱가포르	3,275	22,454	아이티	50	1,088
우간다	3,000	9,000	아랍에미리트	48	1,046
벨기에	2,820	34,947	남아공	10	30
말레이시아	2,540	14,244	<b>합계</b>	591,689	4,999,505
코스타리카	2,059	14,380	--	--	--


2010년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국가	물량(kg)	금액(달러)
이탈리아	305,138	3,087,249	이스라엘	2,154	12,955
일본	68,509	668,655	도미니카	2,018	4,800
호주	64,080	452,024	스페인	1,756	14,916
네덜란드	59,502	404,202	스웨덴	1,750	11,351
대만	51,782	425,533	뉴질랜드	1,591	33,009
미국	47,650	454,229	폴란드	1,236	11,540
브라질	47,285	192,128	베네수엘라	660	10,646
영국	32,680	245,224	홍콩	594	3,103
프랑스	30,132	236,657	태국	462	7,385
독일	25,294	427,195	말레이시아	393	1,812
베트남	13,660	58,517	쿠바	375	2,642
<b>한국</b>	<b>11,563</b>	<b>152,238</b>	에콰도르	347	2,296
터키	11,461	21,671	인도네시아	300	2,220
벨기에	10,927	130,608	포르투갈	109	2,475
콜롬비아	8,153	215,274	아랍에미리트	72	1,365
크로아티아	6,000	38,689	벨리즈	70	375
싱가포르	5,959	40,590	과테말라	34	75
스위스	4,979	226,294	도미니카연방	12	40
덴마크	3,250	19,427	러시아	1	85
코스타리카	3,234	25,270	사우디아라비아	1	77
오스트리아	3,150	30,398	<b>합계</b>	830,522	7,796,931

자료원 : 해관총서(海關總署)

- 중국의 09012200 커피는 이탈리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며, 2010년 점유율은 39.6%에 달함. 그 다음으로 일본(8.6%), 미국(5.8%), 호주(5.8%)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 2. 경쟁국 대비 장단점

[ 주요 국가 커피 제품 비교 ]

국가	제품	규격	가격(위안)	점유율
한국		100개/봉지	75	0.43%
베트남		50개/합	30	78%
독일		76g/합	42	0.22%
말레이시아		400g/봉지	35	0.02%

자료원 : 식품산업망(食品产业网)

[ 수입 커피 원두 가격 ]

구분	규격(g/봉지)	가격(위안)
sungo	454	100
모카	500	250
만델링	500	250
케냐AA	500	250

자료원 : 식품산업망(食品产业网)

- 수입 커피 제품은 종류가 매우 많고 규격이 천차만별이며 가격도 다양함. 위의 표에는 주요한 몇 개 제품만 소개됨. 수입 커피 제품은 대부분 전자상거래로 판매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한정되어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음.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네슬레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음

## 6. 통관 및 수입검사

### 1. 관세, 통관절차, 검사 및 관련 법규

#### 가. 관세

[ 커피 제품 수입 관세 ]

HS코드	제품명	특혜관세 (%)	일반관세 (%)	증치세 (%)	단위
09011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지 않은 커피	8	50	17	kg
09011200	카페인을 제거하고 볶지 않은 커피	8	50	17	kg
090121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은 커피	15	80	17	kg
09012200	카페인을 제거하고 볶은 커피	15	80	17	kg
09019010	커피의 각과 피	10	30	17	kg
0901902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30	80	17	kg

자료원 : 천하관세망(天下关税网)

#### 나. 통관절차

- 수입 절차 : 화물 입항 → 검역 신고 → 세관 신고 → 세금 납부  
→ 세관 화물 검사 → 통관 → 검사검역국 샘플링 또는 샘플 배송  
→ 샘플 검사 및 중문 라벨 심사 → 위생증 발급
- 수입에 필요한 증명서류 : 식품 라벨, 위생 인증서, 원산지 증명, 품질 인증서, 생산날짜 증명. 이와 같은 자료는 수출국이 제출한 것이어야 하며,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공상검역기관에서 동식물 검사·검역을 받아야 함
- 수입식품, 음료 세관 신고, 검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대리계약서, 판매계약서, 인보이스, 선적리스트 각각 1식 3부
  - 중문 라벨 및 원라벨 전자버전 및 라벨 번역본(또는 중문 라벨 예비안 증명서)

- 수출국 공식 위생증 (또는 자유 판매 증명/건강 증명)
- 수출국 공식 생산지 증명
- 업체 성분 분석 설명
- 훈증 증명/나무 재질 포장이 없다는 설명
- 해운 또는 항공운송 B/L
- 기타 각 항구 관리 부서에서 제출 요구한 증명서류

## 다. 관련 법규

- 수입 프리패키지 커피는 수입 시 검역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며, 공장 검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시행조항'을 참고해야 함. 수입된 커피콩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에서 규정한 식물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품의 수입 검역신고 시에는 수출국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커피 제품 관련 기준 및 검측 방법 ]

명칭	해당제품 기준	통용 기준	기존 검측 방법 기준
볶은 원두 커피콩	NY/T605-2006 원두커피	GB2760-2007 식품 중 첨가제 사용 위생 기준 GB13106-1991 식품 중 아연 제한량 위생 기준	GB/T4789.4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증 살모넬라균 검증 GB/T4789.5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증 시겔라균 검증 GB/T4789.10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증 금황색 포도구균 검증 GB/T4789.11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증 용혈성 연쇄상구균 검증 GB/T5009.3 식품 중 수분 측정 GB/T5009.11 식품 중 비소 총량 및 무기비소 측정 GB/T5009.12 식품 중 납 측정 GB/T5009.19 식품 중 BHC, DDT 잔류량 측정 GB/T19182 커피 카페인 함량 측정



명칭	해당제품 기준	통용 기준	기존 검측 방법 기준
커피 가루	--	NY/T605-2006 원두커피  GB2762-2005 식품 중 오염물질 제한량  GB2760-2007 식품 중 첨가제 사용 위생 기준  GB13106-1991 식품 중 아연 제한량 위생 기준	GB/T4789.4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증 살모넬라균 검증  GB/T4789.5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증 시겔라균 검증  GB/T4789.10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증 금황색 포도구균 검증  GB/T4789.11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증 용혈성 연쇄상구균 검증  GB/T5009.3 식품 중 수분 측정  GB/T5009.11 식품 중 비소 총량 및 무기비소 측정 GB/T5009.12 식품 중 납 측정 GB/T5009.19 식품 중 BHC, DDT 잔류량 측정 GB/T19182 커피 카페인 함량 측정
인스 턴트 커피	--	GB7101-2003 고체 음료 위생 기준  NY/T605-2006 원두커피  GB2762-2005 식품 중 오염물질 제한량  GB2760-2007 식품 중 첨가제 사용 위생 기준  GB13106-1991 식품 중 아연 제한량 위생 기준	GB/T4789 식품 위생 미생물학 검증  GB/T5009.3 식품 중 수분 측정  GB/T5009.4 식품 중 회분 측정 방법  GB/T5009.7-1995 식품 중 환원당의 측정 방법  GB/T5009.11 식품 중 비소총량 및 무기비소 측정  GB/T5009.12 식품 중 납 측정  GB/T5009.13 식품 중 구리 측정

자료원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 2. 규제사항

- 조사에 의하면 수입 커피는 가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이 없으며, 공상검역부서에서 커피 성분 검사를 거친 후 합격하면 위생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하면 소각되거나 원생산국으로 반환됨

## 3. 포장 및 라벨링 규정

- 커피는 식품에 속하여 수입 식품 라벨이 중국의 법률과 법규, 강제적인 기준 규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프리패키지 식품 라벨 통칙(GB7718-2004)'을 참고할 수 있음. 수입 커피 원두는 수입 후 라벨을 제작하여 공상검역부서의 심사를 통과하면 포장에 부착이 가능함
- 중국의 수입 식품, 음료 판매상은 중국 '식품 라벨 통용 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고 서류를 준비한 뒤 현지 상품검사검역국에서 신고표를 받고 신고함(수출입 대리사에 위탁 신고 가능)
  - 라벨검사감독관리등록표 (신청서)
  - 외국어 원본 라벨 양식 (앞뒤의 라벨 자료)
  - 외국어 원본 라벨 번역본 (앞뒤의 라벨 자료)
  - 중문 상표 디자인 양식 (앞뒤의 라벨 자료)
  - 식품, 음료의 원산지 증명
  - 중국 판매상 영업허가증, 전화번호
  - 외국 생산 업체 명칭
  - 식품, 음료의 샘플  
(일반적으로 3~5팩/병, 가끔 수요에 따라 더 많이 필요함)
  - 국가 공상검역국 증명 발급 부서에서 요구한 기타 자료
- 상기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화물 통관 신고를 마친 후, 현지 공상검역국에 신고하여 심사 또는 화물 도착 전까지 공상검역국이 지정한 부서에서 중문 라벨을 등록해야 함

## 7. 한국산 유통동향 및 경쟁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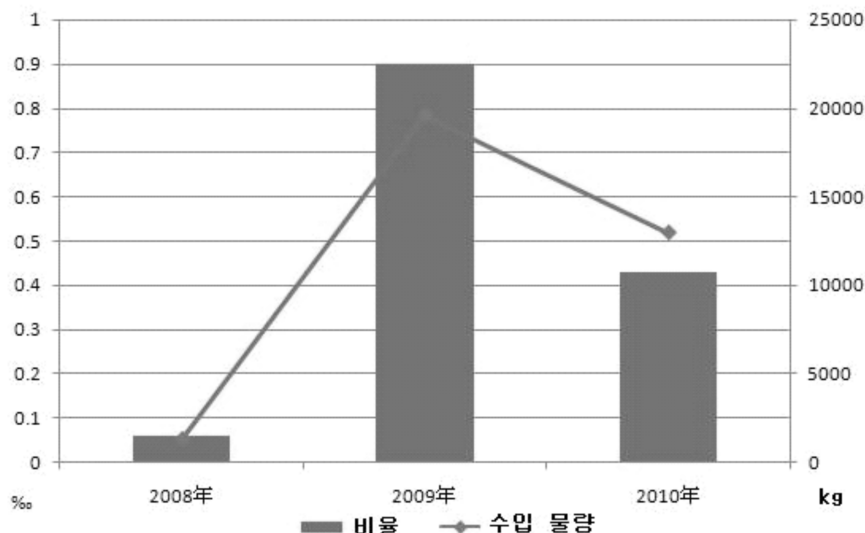
### 1. 한국산 수입규모 및 점유율

[ 2008-2010년 한국산 커피 수입 물량 및 비율 ]

구분	2008	2009	2010
수입 물량(kg)	1,303	19,606	12,981
비율(%)	0.06	0.90	0.43

자료원 : 해관총서(海關總署)

[ 한국산 커피 수입 물량 및 비율 ]



- 위 표의 수치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한·중 양국 커피 무역의 커다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2008년 수입량은 1,303kg에 그쳤지만 2009년 수입량은 약 20,000kg에 달해 10배 이상 증가했음. 2010년 수입량의 변동폭은 매우 크며, 2009년에 비해 약 7,000kg가 감소했음.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커피 총 수입량은 비슷하고 2010년 총 수입량은 높은 편이며, 총 수입량 중 한국 수입량 점유율의 변동폭도 상당히 큼

-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2008년 금융위기가 한·중 커피 무역에 미친 영향과 중국 커피 문화의 더딘 발전으로 인해 커피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으로, 특히 일부 외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여 일정한 점유율을 얻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함

## 2. 한국산 선호도

- 중국커피망(中国咖啡网), 문권성망(问卷星网)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산 커피는 젊은 소비자가 주로 선호하며, 이 중 100개입 포장의 맥심 3 in 1 커피믹스 제품의 판매량은 최고를 자랑함
  - 현재 한국산 커피의 판매상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상하이, 산둥, 광저우 등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한국산 제품은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음. 그러나 북쪽 지역의 소비자는 아직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음

## 3. 경쟁국 대비 장단점

- 한국산 커피의 가격은 중간 수준이며,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우위가 뚜렷하지 않음
  - 제품 가격은 주로 포장규격과 관련이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100팩/봉지 포장 제품의 판매량이 매우 좋으며, 가격은 60-70위안임
  - 제품 판매량, 인지도, 시장 점유율, 판매 경로 등 면에서 한국산 커피와 기타 수입국 커피의 수준은 같음. 한국산 맥심 커피는 맛이 독특해서 일부 소비자가 선호함

#### 4. 경쟁국 마케팅 사례 및 전략, 시사점

[ 커피제품 마케팅 전략 ]

제품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전략
네슬레	아늑함, 레저	단일 브랜드, 제품 다양화 전략, 경쟁자보다 신제품 먼저 개발
맥스웰	아늑함, 인정, 나눔	모든 제품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로맨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냄
브라운	청춘, 활력	끊임없이 소비자 요구에 부합한 커피 맛을 출시
Yaha 커피	언제나 어디서나	기존 소비자 유지

자료원 : 조사업체 내부자료

- 경쟁이 치열한 커피 시장에서 네슬레는 브랜드 가치 향상, 제품 품질 제고, 신제품 업그레이드, R&D 실력 강화 등의 전략을 취함
- 마케팅 전략 시사점
  - 브랜드 가치 향상 : 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업계의 대명사가 되었다면 그 가치는 제품 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것임. 해당 제품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소비자의 심리적인 수요도 잘 충족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꺼이 이와 같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게 됨
  - 신제품 개발 : 제품이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한 이후에도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새로운 포장, 새로운 맛, 새로운 제품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는 소비자의 선택 여지를 더욱 넓혀 주고 새로운 고객에게도 어필할 수 있음
  - 기존 고객 유지 : 장기적으로 협력해온 바이어에게 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

## 8.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 1. SWOT 시장분석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시장의 잠재성</li> <li>일정한 고객층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제품의 높은 시장 점유율</li> <li>글로벌 선두기업의 시장 독점</li> <li>브랜드 홍보 부족</li> </ul>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잠재적인 시장수요</li> <li>새로운 판매 경로와 시장개척</li> <li>글로벌커피 기업의 커피소비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 간 경쟁리스크 및 자금리스크</li> <li>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낮은 인지도</li> <li>국제 커피 가격 추세</li> </ul>

#### 가. 우위 분석

-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커피 생산국이 중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현재 중국 시장의 한국 제품은 주로 맥심, 맥스웰 등으로 브랜드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새로운 한국 브랜드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한국산 커피는 중국 시장에서 일정한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어 이는 한국 제품 홍보에도 도움이 되며, 입소문을 확보하여 신제품의 출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나. 약세 분석

- 중국 커피 시장에는 이미 많은 세계 유명 브랜드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음. 현지 국산 제품인 작은 열매 커피, 세계 커피 선두 주자인 네슬레, 맥스웰, 미국 스타벅스 체인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들 제품은 오래 전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맛으로 중국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켜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음. 또한 소비자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 이미 선두기업의 독점구조가 형성됨

- 한국제품의 브랜드는 다양하지 않고 홍보 마케팅 비용도 적어 커피 음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소비자의 한국산 커피 인지도는 매우 낮음

### 다. 기회 분석

-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커피 소비는 15%의 속도로 증가하여 한국산 커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기존 커피의 판매 경로는 주로 직접 판매, 대리, 원두커피 판매 등의 형태이며 대부분은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음. 한국 커피 기업이 이러한 전통적인 판매 방식을 바꾸어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한다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글로벌 커피 기업의 시장 개척 및 홍보는 커피 소비를 촉진해 왔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 커피 기업이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데 매우 유리하며 신속하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라. 위협 분석

- 많은 대형 커피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업계 간의 경쟁이 예상됨. 중국 시장이 뒤늦게 발전한 것은 소비자들의 커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커피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커피 기업은 자금 투입으로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해야 함. 또한 국제 커피 가격의 상승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2. 수출확대방안

### 가. 유의사항

- 한국에서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되는 맥심, 네슬레 커피는 바이어가 생산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고, 수집상, 대리상 등을 통해 수입하는 형태임
- 이는 중국의 맥심, 네슬레 커피 회사의 생산품과 한국 맥심, 네슬레의 중국 수출품 간에 야기될 수 있는 유통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지역 내 생산품은 오직 해당지역에서만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짐

### 나. 품질전략

- 커피 제품은 기타 제품과 달리 소비자가 커피의 향과 품질을 가장 중요시 여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반드시 완벽한 품질 보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을 보장해야만 시장에서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함

### 다. 홍보전략

- 제품 홍보는 흔히 접할 수 있는 판매 방법으로 특히 중국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음.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맥스웰의 'GOOD TO THE LAST DROP'은 전형적인 생활 광고 문구로 평가 받고 있으며, 네슬레의 '완전 맛있어요'는 달콤하고 신선한 광고 문구 및 이미지로 네슬레의 커피 문화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음



## 라. 유통전략

- 유통 경로는 독점대리, 다점대리, 자체 소매 방식 등으로 매우 다양함. 여러 판매상이 함께 운영하여 제품 판매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중개상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판매상의 이익을 보장하고 최종 소비자 구매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음

## 마. 현지 바이어 의견

- 수출 및 수입업체는 제품 브랜드와 맛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적절히 조절하여 더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함. 일반 소비자는 오리지널 맛의 팩 제품을 선호하며, 현재 한국의 주요 제품 중 맥스웰 커피 3 in 1 팩 제품이 인기임. 식품 검증 과정과 식품 라벨 등 관련 수속 및 절차를 제외하면 수입과정은 대체로 간소한 편임

## 9. 기타

### 1. 관련 웹사이트

업체명	保山云潞咖啡产业开发有限责任公司
웹	<a href="http://www.bsylcoffee.com/Index.asp">http://www.bsylcoffee.com/Index.asp</a>
업체명	北京泰谷万隆咖啡有限公司
웹	<a href="http://www.coffee-china.com/index.asp">http://www.coffee-china.com/index.asp</a>
업체명	福山咖啡联合公司
웹	<a href="http://www.fushancoffee.com/">http://www.fushancoffee.com/</a>
업체명	家乐福在线商城
웹	<a href="http://e-shop.carrefour.com.cn/cn/index.do">http://e-shop.carrefour.com.cn/cn/index.do</a>
업체명	上海茂元食品有限公司
웹	<a href="http://shmaoyuansp.cn.alibaba.com/">http://shmaoyuansp.cn.alibaba.com/</a>
업체명	诚品食品有限公司
웹	<a href="http://www.spcoffee.com/aboutus.asp">http://www.spcoffee.com/aboutus.asp</a>
업체명	茜卡咖啡工厂
웹	<a href="http://www.sicacoffee.com/index.asp">http://www.sicacoffee.com/index.asp</a>
업체명	广州市名洋咖啡餐饮有限公司
웹	<a href="http://www.coffee188.com/index.asp">http://www.coffee188.com/index.asp</a>

업체명	悠诗诗上岛咖啡(上海)有限公司
웹	<a href="http://www.ucc-coffee.com.cn/docc/company.asp">http://www.ucc-coffee.com.cn/docc/company.asp</a>
업체명	东莞市金比卡食品有限公司
웹	<a href="http://jinbika.foodmate.net/sell/">http://jinbika.foodmate.net/sell/</a>
업체명	威海农心韩国食品有限公司
웹	<a href="http://www.weihaifood.com/coffee.asp">http://www.weihaifood.com/coffee.asp</a>

## 2. 바이어리스트

업체명	青岛保税区三丰和贸易有限公司
전화	0532-8570-8892
팩스	0532-8570-163
이메일	quanhejun1963@hotmail.com
담당자	权赫俊 사장
웹	-

업체명	青岛青洋投资管理咨询有限公司
전화	0532-6679-3311
팩스	0532-6679-3366
이메일	abai0204@163.com
담당자	박진희 사장
웹	-

업체명	大连佳志商贸有限公司
전화	0411-8660-0662
팩스	0411-8254-0977
이메일	sales@dljiazhi.cn
담당자	刘伟峰 总经理
웹	www.dljiazhi.cn

업체명	上海韩佑商贸有限公司
전화	186-0165-6656 021-6579-2516
팩스	021-6579-2520
이메일	peiyunlong@hotmail.com
담당자	裴云龙 总经理
웹	-

업체명	上海亿堡旺国际贸易有限公司
전화	021-3431-7595
팩스	021-3432-0249
이메일	hmy.197279@hotmail.com
담당자	张星 总经理
웹	-

업체명	湖北省粮油食品进出口(集团)公司
전화	027-8549-6117
팩스	027-8549-6007
이메일	zhaomg999@163.com
담당자	赵明光 商务部总经理
웹	www.hbcofco.com

업체명	共共
전화	189-7127-3142
팩스	070-7016-0886
이메일	jamesleekr@hotmail.com
담당자	이재석 사장
웹	www.haoyou.co.kr

업체명	上海茂元食品有限公司
전화	021-6449-5629
팩스	021-5476-5157
이메일	maoyuan2000@126.com
담당자	張宇 總經理
웹	www.shmaoyuansp.com.cn

## 3. 커피 취급업체

업체명	云南咖啡厂
주소	云南省昆明国家经济技术开发区希陶路3号
전화	0871-7261906
설립년도	1992년
사업부분	커피 생산
취급상품	커피
담당자	--

업체명	云南中合咖啡有限公司
주소	云南省昆明市政教路14号
전화	0871-5122496 / 0871-5199410
설립년도	2006년
사업부분	커피 생산, 판매, 대리
취급상품	커피
담당자	--

업체명	云南德宏后谷咖啡有限公司
주소	北京市朝阳区鼎成路9号世纪宝鼎A座2202室
전화	010-84854663
설립년도	1997년
사업부분	커피 재배, 가공, 수출입 등
취급상품	커피
담당자	--

업체명	北京泰谷万隆咖啡有限公司
주소	北京市朝阳区鼎成路9号世纪宝鼎A座2202室
전화	010-84854663
설립년도	1997년
사업부분	커피 생산, 가공, 수출입 등
취급상품	커피
담당자	--

업체명	威海市韩骏贸易有限公司
주소	山东省威海市环翠旅游度假区长江街北首
전화	0631-5752519
설립년도	--
사업부분	식품 수입 (한국 식품 위주)
취급상품	커피, 음료, 과자
담당자	邹经理

업체명	北京利尚咖啡公司
주소	北京市亦庄经济开发区南金桥
전화	13811100197
설립년도	2005년
사업부분	커피 판매
취급상품	커피
담당자	魏先生

업체명	上海成果贸易有限公司
주소	上海市康桥镇川周公路2655弄8号
전화	021-68139105
설립년도	--
사업부분	생산, 수입 대리
취급상품	커피
담당자	陈小姐

업체명	海南宝利食品有限公司
주소	海南省文昌市迈号镇新街151号
전화	--
설립년도	2000년
사업부분	커피 등 생산, 판매
취급상품	커피
담당자	李先生

업체명	上海意林贸易有限公司
주소	上海市普陀区武威路259号万润国际酒店用品市场
전화	021-51032236
설립년도	2008년
사업부분	커피 등 판매
취급상품	커피
담당자	王先生



업체명	仙度氏咖啡(北京)有限公司
주소	北京市通州区马驹桥镇北门口
전화	010-87836666
설립년도	2007년
사업부분	커피 생산, 판매 등
취급상품	커피

업체명	天津鼎诺科技发展有限公司
주소	天津市南开区华苑产业园区海泰火炬创业园
전화	022-85685188
설립년도	--
사업부분	커피 등 가공
취급상품	커피
담당자	张先生

업체명	广州食尚一品进口食品有限公司
주소	广东省广州市白云区云景商务中心A118
전화	020-37356643
설립년도	2005년
사업부분	수입 식품 도매
취급상품	수입 식품
담당자	钟女士

## 제 3 장. 호 주

1. 시장개요	59
2. 생산동향	61
3. 유통동향	64
4. 소비동향	70
5. 수출입동향	73
6. 통관 및 수입검사	77
7. 한국산 동향 및 경쟁국 동향	81
8.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84
9. 기타	86



## 1. 시장개요

- 호주의 인스턴트커피 시장 규모는 연간 A\$4억 2500만 달러 규모임
- 여러 브랜드 중 Nescafe가 7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선두 주자로서, 매년 광고비로 A\$2500만 달러를 호주 시장에 지출하고 있음
- 네스카페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여 매우 안정적으로 인스턴트커피 시장이 유지되었지만, 2003년도에 Cerebos Australia가 Riva 브랜드와 함께 등장함으로써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에는 인스턴트커피 보다 Ground Coffee(굵게 간 커피)의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호주 현지의 생산량이 매우 미미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입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이탈리아로부터의 커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 국가가 다양한 편이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미미함
- 호주의 커피 로스팅(Roasting), 유통, 그리고 도매 산업의 매출 규모는 연간 100억 호주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일반적으로 커피 원료인 Green Bean을 A\$5/kg의 가격에 구입하여 커피 로스터(Roaster)를 통해 작게는 A\$20/kg, 많게는 A\$50/kg의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커피 소매 판매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

- 유명 커피체인인 Starbucks, Hudson, Gloria Jean's 등은 아직 호주 커피시장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님
- 매우 큰 마진을 때문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향후 5년 사이에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수, 합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1. 호주의 카페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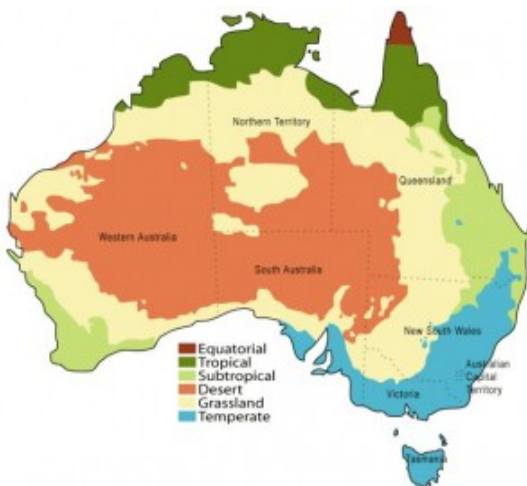
- 카페나 레스토랑을 통한 커피 판매는 호주 전체 커피 시장의 20%인 연간 A\$20억 달러 규모임
- 호주의 평균 카페 순이익은 매출액의 20% 수준임
- 중간 크기의 카페는 커피 판매를 통해서만 연간 A\$25,000달러의 이익을 남기고 있음
- 커피 생산업체들은 카페에 커피 머신, 파라솔, 설탕, 컵 등의 액세서리 무상 제공과 같은 전략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일부 생산업체들은 커피 가격에 커피 머신 및 서비스 비용을 포함해 제공하는 '무료 대여(Free on Loan)' 방식으로 커피 머신을 제공하고 있음
- '무료 대여(Free on Loan)' 방식이 아니라면 3년간 A\$4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많은 카페들이 이 방식으로 생산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카페를 통한 매출보다 가정용 제품의 매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Segafredo와 같은 브랜드는 슈퍼마켓이나 식품점을 통한 가정용 제품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 생산동향

- 호주에서는 1880년과 1926년 사이 Queensland주 Brisbane의 Kangaroo Point에서 처음 커피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는데, 차츰 New South Wales 주의 Cooktown부터 Queensland 북부 해안 지방까지 재배 지역이 넓어졌음
  - 이 시기에 약 50-60개의 커피 농장이 호주 전체 커피 생산량의 40% 가량을 생산하였는데, 품질이 좋아 파리와 로마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후 비싼 인건비로 인해 커피 생산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음
- 그러나 기계를 이용한 수확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시 1980년대부터 커피산업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호주 정부의 지원과 함께 고품질의 Arabica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이 NSW주 북부 Coffs Harbour부터 북부 Queensland주까지 생기기 시작하여 지금껏 유지되고 있음
- 현재 호주는 국민들의 커피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은 적은 편으로 연간 600톤가량의 Green Bean이 호주 동부 Queensland주 해안가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음
  -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아닌 호주의 특수 커피 전문가들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호주에서는 고품질의 Arabica 커피만을 생산하여 고급제품 시장, Roast, Ground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의 토양이나 기후 등 재배 환경이 이보다 품질이 약간 떨어지면서 인스턴트커피에 사용되는 Robusta 커피를 재배하기에 맞지 않기 때문임
- 호주의 Arabica 커피 수입량이 연간 12000-15000톤가량임을 감안하면, 호주에서 생산되는 Arabica 커피는 호주 전체 Arabica 시장의 6%

이며, 전체 커피 시장의 1%에 불과한 미미한 규모임

- 즉, Premium, Single Origin, Shade Grown, Organic, Free Trade Coffee 등 여러 종류의 고급 커피를 아우르는 ‘전문(Specialty)’ 커피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호주 국내 생산에는 한계가 있어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호주에는 크게 4곳의 주요 커피 생산지가 있는데, 이는 Far-north Queensland(열대기후), Central Queensland Coast(열대기후), South-eastern Queensland(아열대기후), North-eastern New South Wales(아열대기후)임



- 다음은 호주 각 지역 주요 커피 생산지역 및 생산 현황을 조사한 자료임

지역	면적(ha)	재배 업체수	2002년 DGB 생산량	2007년까지 5년간의 DGB 생산량
Far north Queensland	350	10	300	800
Central Queensland Coast (Mackay-Proserpine) (Yeppoon)	20	3	5	50
	100	1	80	200
South-eastern QLD (Caboolture-Nambour)	20	10	10	50
North-eastern NSW	250	120+	100	500
<b>전체</b>	740		495톤	1600톤

출처 : R&D Plan for the Australian Coffee Industry 2003-2008

DGB : Dry Green Bean

- NSW주는 다른 주에 비해 생산업체들이 아주 많지만, 대부분 20톤 미만의 커피를 생산하는 영세 농장인 것으로 파악됨
- ※ 호주의 커피 생산량은 미미하고 영세 업체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3개년 생산량과 같이 체계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없음



### 3. 유통동향

#### 1. 현지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 다양한 커피가 호주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커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매 구조가 나누어짐

##### 가. 인스턴트커피

- 앞서 언급했듯이 호주에서는 Nescafe 브랜드가 호주 인스턴트커피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생산업체인 Nestle사는 호주 시드니에 진출해 있으며, 이 업체가 직접 생산품을 현지 대형 할인매장이나 식품점 등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나. Ground Coffee

- 대부분의 제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업체들은 직접 커피 매장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커피를 판매하는 동시에 다른 커피 매장이나 식품 판매점 등에 커피를 공급함
  - 특히 대형 할인매장에는 모든 업체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며, Vittoria, Lavazza 등이 대표적인 공급 브랜드임
  - 업체의 숫자는 인스턴트커피 유통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임

#### 2. 유통형태 및 유통규격

- 호주에서는 유통되는 커피에 대한 별다른 규격 제한은 없으며, 주요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음

가. Big W

-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Nescafe 제품이며, 일부 Moccona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나. Woolworths

- Woolworths는 식품전문 매장이기 때문에 앞서 조사한 Big W 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3. 타 수입산 진출현황

- 호주에 수입되는 커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수입 국가 역시 수십 개국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이 제일 많으며, 자세한 수입국 관련 사항은 '5. 수출입 동향'을 참고 바람

### 4. 가격 동향

- 호주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대부분 Arabica 커피로서, 그 수량이 적고 해외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비쌈
  - 특히 지난 10년간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수입산 커피의 가격이 A\$3-4/kg인데 비해 호주산 Arabica 커피의 가격대는 A\$8-9/kg에 형성되어 있음
  - 호주산 제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은 소매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호주산 제품의 경우 소매에서 A\$35/kg에 거래가 되며, 수입산 제품은 A\$25-30/kg에서 거래되고 있음
  - 향후 호주산 커피의 국내 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호주 업체들이 계속해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수입품에 대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호주제품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움
  - 일부 호주 제품은 A\$50/kg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호주 생산 커피는 고급 커피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임
- 상기 커피는 카페나 전문매장에서 파는 Ground 커피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며, 인스턴트커피나 일반 식품 할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가격은 다음 조사 자료를 참고 바람
- 현지의 대형 할인 매장인 Woolworths와 BigW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 제품들의 판매 가격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 Big W**

- Nescafe Blend 43 (700g) : A\$19.00
- Nescafe Original (200g) : A\$4.98
- Moccona Medium Roast (400g) : A\$18.98
- Jarrah (400g) : A\$8.98 - Cappuccino, Vienna Velvet, Swiss Moments

**나. Woolworths (식품전문 할인매장)**

- Nescafe Blend 43 (150g) : A\$7.94
- Nescafe Blend 43 (300g) : A\$14.69
- Nescafe 43 Decafe (250g) : A\$13.25
- Nescafe Espresso (150g) : A\$7.94
- Nescafe Gold Original (100g) : A\$6.49
- Nescafe Gold Original (200g) : A\$14.59
- Nescafe Gold Dark Roast (200g) : A\$14.59
- Nescafe Tea Bag (20개 x 12.5g) : A\$10.91
- Nescafe Tea Bag (10개 x 12.5g) : A\$5.99  
(Cappuccino, Mocha Latte, Vanilla Latte, Caramel Latte, Hazelnut Latte, Irish Cream Latte)
- Moccona Classic (200g) : A\$9.99
- Moccona Classic (400g) : A\$19.99
- Lavazza Torino Cafe Espresso (1kg) : A\$30.49
- Lavazza Torino Cafe Espresso (200g) : A\$6.54
- Lavazza Torino Creamae Gusto (200g) : A\$6.54

## 커피

- Vittoria Espresso Natural Decafe (200g) : A\$8.85
- Vittoria Espresso (200g) : A\$7.00
- Vittoria Nero Premium High Altitude Coffee (100 Arabica 200g) : A\$9.99
  
- Robert Timms Gold Colombia Style (1.5kg) : A\$21.99
- Robert Timms Italian Espresso Style (1.5kg) : A\$21.99
  
- Primo Caffe Classic (1kg) : A\$14.99
- Primo Caffe Espresso (1kg) : A\$16.99
  
- 다음은 개별적으로 커피를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업체 중의 하나인 Coffex Coffee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Ground 커피의 가격을 조사한 자료임

상품	중량	소매가격	비고
	250g	A\$7.50	Superbar Espresso Gound Coffee 중남미산 커피
	100g	A\$25.00	Jamaican Blue Mountain Blend Coffee Beans
	500g	A\$11.00	Turkish Ground Vacuum Pack

상품	중량	소매가격	비고
	1 kg	A\$32.00	Classic Scuro Coffee Beans, Dark Roast
	250g	A\$8.50	Global Cafe Direct Africas Organic Ground Coffee
	250g	A\$5.50	Lebanese Ground Coffee
	100g	A\$10.00	Global Cafe Direct Organic Freeze Dried Instant
	500g	A\$18.00	Flavour Selections - Hazelnut
	250g	A\$10.45	Colombian Condor Espresso Ground Coffee
	500g	A\$36.00	Global Cafe Direct Organic Freeze Dried Instant
	250g	A\$6.00	Illios Ground Coffee Vacuum Pack

## 4. 소비동향

### 1. 구매동향

- 증가세에 있는 세계 커피 수요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호주인들의 커피 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개인별 커피 소비량은 2001년 기준 연간 2.4kg으로, 30년 전의 1.2kg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남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차 소비량은 1인당 1.2kg에서 0.9kg으로 줄어들었음
- 커피 총 소비량의 80% 규모인 약 A\$5억 1600만 달러를 인스턴트커피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Roast와 Ground Coffee가 A\$9600만 달러 규모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편리한 가정용 커피메이커가 다양하게 등장함에 따라 호주 국민들이 인스턴트커피 보다는 고품질의 Roast 또는 Ground 커피를 즐기는 경향이 높아져, 2002년 이후에는 전체 커피 시장 규모의 28%까지 오르고 있는 추세임
- 주요 커피 수입 및 공급업체 중 하나인 Aroma사의 Mr. Stephen Skarparis(Director)에 따르면, 커피 머신이 부엌의 주요 액세서리가 될 정도로 호주의 가정에서 카페 스타일의 커피를 즐기는 경향이 부쩍 늘어난 상태임
  -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Aroma사는 호주 전역에 커피뿐만 아니라 A\$400-A\$3000 사이의 다양한 가격대의 커피 머신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함. 그 중에서 많이 판매 되는 제품의 가격대는 A\$1100-A\$1200 사이임
  - 최근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호주인들이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해 구매하는 Coffee bean과 인스턴트커피의 구매량은 연간 A\$7억 73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같은 시기 차 소비 금액인 A\$4억 5260만 달러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금액임

## 2. 수입산 국가별 선호도

- 인스턴트커피의 경우 특별히 선호하는 국가가 없으며, 대부분 Ground Coffee를 구매하거나 커피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를 구입할 때 선호도가 나타남
- 수입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으며, 실제로 호주인들이 선호하는 커피 역시 이탈리아 커피임
- 커피 전문매장이나 테이크아웃 커피점(Take Away Shop) 등에서 파는 커피 대부분이 이탈리아산 커피를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이탈리아산 커피를 많이 마심. 따라서 이탈리아산 커피에 입맛이 들여진 것으로 파악됨
  - 1940-50년대에 호주 커피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과 현재 커피 수입 및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인 점, 각종 커피 관련 협회에 등록된 업체들 역시 이탈리아계인 점 등을 이유로 호주의 커피 산업계는 이탈리아 커피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
- 그 외 중남미 커피 및 인도 등 서남아시아 커피가 많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3. 향후 소비전망

- 또한 2002년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들이 가정이 아닌 바깥에서 즐기는 주요 음료 역시 커피(카푸치노 제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탄산음료, 물, 카푸치노, 우유가 따르고 있음
- 호주 소비자들은 점차 자신들이 좋아하는 향을 좀 더 세분화하고 순도(Purity)나 원산지(Provenance) 등으로 묘사되는 '커피 원료'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커피 원료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상으로 개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지는 맞춤형 커피(Customized Coffee)의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음

## 5. 수출입동향

### 1. 수입동향

- 호주는 실질적으로 커피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2001년 기준으로 45,000톤의 DGB(Dry Green Bean)를 수입하였으며, 이를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A\$6억 360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파악됨

[ 호주의 국별 커피 수입현황(금액 기준) ]

(단위 : 백만USD,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09/'08
	전체	182.43	216.00	221.98	100	100	100	2.77
1	이탈리아	35.91	33.29	33.43	19.68	15.41	15.06	0.42
2	파푸아뉴기니	25.72	25.53	29.28	14.1	11.82	13.19	14.69
3	브라질	21.88	27.32	27.75	12	12.65	12.5	1.6
4	인도네시아	13.82	31.14	20.15	7.57	14.42	9.08	-35.29
5	베트남	23.54	17.06	19.56	12.9	7.9	8.81	14.66
6	스위스	5.25	11.35	15.88	2.88	5.26	7.16	39.93
7	콜롬비아	9.50	12.62	13.21	5.21	5.85	5.95	4.63
8	인도	7.07	8.83	6.98	3.87	4.09	3.14	-21
9	온두라스	5.99	6.22	6.29	3.28	2.88	2.83	1.13
10	에티오피아	3.80	5.95	5.96	2.09	2.75	2.69	0.29
42	한국	0.00	0.03	0.07	0	0.02	0.03	110.28

출처 : World Trade Atlas

- 2009년도 호주 전체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2.77% 늘어난 미화 2억 1600만 불 규모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가별로는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15.06%인 미화 3343만 달러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파푸아뉴기니(13.19%), 브라질(12.5%), 인도네시아(9.08%), 베트남(8.81%) 등이 잇고 있음
- 2009년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미화 7만 달러 규모로서,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3%로 아주 미약한 수준임

**[ 호주의 국별 커피 수입현황(중량 기준) ]**

(단위 :톤, %)

순위	국가	중량			증감
		2007	2008	2009	'09/'08
	전체	59,916	61,203	65,153	6.45
1	베트남	14,196	7,836	11,823	50.87
2	파푸아뉴기니	10,164	9,107	10,522	15.53
3	브라질	8,758	9,281	10,061	8.4
4	인도네시아	6,012	11,923	9,481	-20.48
5	콜롬비아	3,119	3,732	3,348	-10.28
6	이탈리아	3,576	3,162	3,130	-0.99
7	인도	3,147	3,320	2,782	-16.22
8	온두라스	2,269	2,011	2,041	1.48
9	에티오피아	1,324	1,686	1,806	7.11
10	코스타리카	779	1,008	1,085	7.59
45	한국	0.8	7	14	101.33

출처 : World Trade Atlas

- 수입 금액이 아닌 수입량(kg) 기준으로도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약 6만 5천 톤 가량 수입된 것으로 파악됨
- 국가별로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1만1800

톤 규모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파푸아뉴기니(1만5백톤), 브라질(1만톤), 인도네시아(9400톤), 콜롬비아(3300톤) 등이 잇고 있음

- 2009년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1.4톤 규모임

## 2. 수출동향

### [ 호주의 국별 커피 수출현황(금액 기준) ]

(단위 : 백만USD, %)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09/'08
	전체	18.12	18.25	16.15	100	100	100	-11.5
1	뉴질랜드	11.33	10.08	8.07	62.53	55.23	49.98	-19.91
2	싱가포르	1.32	1.02	1.00	7.28	5.59	6.22	-1.48
3	홍콩	0.44	0.41	0.78	2.41	2.25	4.86	90.79
4	말레이시아	0.33	0.51	0.61	1.82	2.77	3.79	21.04
5	뉴칼레도니아	0.14	0.07	0.61	0.77	0.39	3.79	759.34
6	영국	0.47	0.43	0.59	2.58	2.38	3.68	36.87
7	중국	0.49	0.47	0.52	2.68	2.57	3.22	10.94
8	한국	0.34	0.67	0.45	1.86	3.65	2.81	-31.76
9	폴리네시아	0.07	0.06	0.45	0.41	0.31	2.79	705.03
10	UAE	0.21	0.31	0.34	1.14	1.7	2.08	8.16

출처 : World Trade Atlas

- 2009년도 호주의 전체 커피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11.5% 감소한 미화 1615만 달러 규모로 파악됨
- 국가별로는 뉴질랜드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49.98%인 미화 8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싱가포르(6.22%), 홍콩(4.86%), 말레이시아(3.79%), 뉴칼레도니아(3.79%) 등이 잇고 있음
-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2.81%인 미화 45만 달러 규모임

## [ 호주의 국별 커피 수출현황(증량 기준) ]

(단위 : 톤, %)

순위	국가	증량			증감
		2007	2008	2009	'09/'08
	전체	2,663	2,381	2,152	-9.63
1	뉴질랜드	1,586	1,397	1,110	-20.51
2	베트남	5	31	132	328.04
3	싱가포르	193	139	131	-5.53
4	말레이시아	41	95	105	10.98
5	홍콩	78	73	105	44.09
6	중국	59	85	53	-37.78
7	영국	37	24	48	100.62
8	일본	89	43	43	-0.88
9	뉴칼레도니아	20	12	40	245.2
10	한국	43	115	39	-66.48

출처 : World Trade Atlas

- 2009년도 호주의 전체 커피 수출량은 전년에 비해 9.63% 감소한 2152톤 규모로,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국가별로는 뉴질랜드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20.51% 감소한 1110톤 규모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베트남(132톤), 싱가포르(130톤), 말레이시아(105톤), 홍콩(105톤) 등이 잇고 있음
-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66.48% 감소한 3.8톤 규모임
- 국가별 수입 단가는 조사가 불가능함을 참고 바람

## 6. 통관 및 수입검사

### 1. 관세 및 통관절차

- 커피의 HS Code는 0901이며, HS Code 0901 이하 제품의 호주 수입 관세는 없음
- 수입통관 절차 관련하여 특별히 커피에만 적용되는 통관 절차가 없어 일반적인 식품/음식류 수입 시 통관 절차를 조사하였음
- 호주는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나 세균에 대한 동식물들의 면역성이 약한 관계로, 수입품 중에서도 특히 동식물에 대한 검역이 무척 까다로운 상황임. 이에 따라 전체 수입식품 검역 절차도 무척 까다로운데, 호주의 수입식품 검역은 농수산부 산하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수행하고 있음
- AQIS가 수입 식품의 검역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을 명시한 ‘오스트리아 수입식품의 자격요건(Australia’s imported food requirements)’이라는 문서의 일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음

#### 가. 식품 수입 및 검역 절차

- 식품 수입시 아래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됨
  - 1) Risk Category Foods : 호주 세관의 검사 결과 오염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도가 중, 상 이상 되는 식품들을 분류함
  - 2) Referral of Imported food Consignments : 세관 검사 결과 오염 위험도가 중, 상 이상 된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AQIS의 추가 검사를 받게 됨

- 3) **Inspection and Release of Imported Foods** : AQIS로 넘겨진 식품의 허가를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직접 AQIS를 방문해야 하며, 호주의 표준에 따라 AQIS로 넘겨진 모든 식품은 추가 검사를 받게 됨. 검사 기준은 식품 안전과 라벨 관련 사항들이며, 수입 허가에는 생산업자가 그동안 얼마나 호주의 표준에 부합해 왔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됨

## 2. 규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포장 및 라벨링 규정

- 호주의 식품 관련 표준을 관장하는 Food Standards Australia의 규정에는 모든 식품 포장에 다음과 같은 공통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포장에는 다음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제품명 (Prescribed name or where no name is prescribed, a name or a description of the food sufficient to indicate the true nature of the food)
  - 일련번호 (Lot identification)
  - 호주에 있는 수입업체 주소 (Name and business address in Australia or New Zealand of the supplier)
  - 기본적인 경고 사항(Mandatory warning and advisory statements and declarations, specified in Standard 1.2.3 and any other warning and advisory statements specified elsewhere in the ANZFSC)
  - 성분표 (Ingredient listing)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Date marking)

- 영양소 표기 (Nutrition information panel)
  - 성분 함량 (Percentage labelling, characterizing ingredient/s and component/s)
  - 섭취 및 보관법 (Directions for use or storage where, for reasons of public health and safety, consumers need appropriate directions for use or storage of the food)
  - 생산국 및 원산지 (Country of Origin must be stated on products made and sold in Australia, other than food products from New Zealand)
-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서는 카페인 함유량을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음은 식품 표준(Food Standards)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당 식품과 각 제품별 카페인 함유량을 명시한 내용임

식품	카페인 함유량
Percolated coffee	60-120mg / 250ml cup
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s or energy drinks	80mg / 250ml can
Instant coffee (1 teaspoon/cup)	60-80mg / 250ml cup
Tea	10-50mg / 250ml cup
Coca Cola	48.75mg / 375ml can
Milk Chocolate	20mg / 100g bar

-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참고 바람
- <http://www.foodstandards.gov.au/consumerinformation/adviceforpregnantwomen/caffeine/>



#### 4. 기타 유의사항

- 식품 수출입에 관해서 호주는 철저하게 The 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CCFICS)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호주는 별도로 Codex Australia를 농수산부 산하에 두어 운영하고 있음
  - 주소 : GOP Box 858, Canberra, ACT 2601
  - 전화 : 61-2-6272-4542
  - 팩스 : 61-2-6272-3103
  - 홈페이지 : [www.daff.gov.au/agriculture-food/codex/resources/links](http://www.daff.gov.au/agriculture-food/codex/resources/links)
- CCFICS는 세계 농업식량기구(FAO)와 세계 보건기구(WHO)가 세계의 식품 수출입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1963년도에 설립한 조직으로서, 현재 식품 관련 표준을 200개 이상 정해 놓고 있음
  - 호주는 식품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과 표준을 철저하게 식품 수출입에 적용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대한 현재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호주 내에 별도로 FSC(Food Standards Code)가 있기는 하지만 Codex를 우선시하고 이에 최대한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 규정의 철저한 적용을 위해 현재 Codex Australasia는 식품 가공 분야에서는 9개 위원회와 1개 태스크포스를, 1차 식품 분야에서는 11개의 위원회와 1개의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여 운용중임
- 호주 식품 수입 시 까다로운 검역 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은 없으며, 정해진 규정에 따른 제품을 수입하고 포장도 준수하는 것이 유의해야 할 사항임

## 7. 한국산 유통동향 및 경쟁국 동향

### 1. 한국산 수입규모 및 점유율

- 앞서 조사된 수입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커피 수입량은 매우 미미함
-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2007년에는 수입액이 전무하였으며 2008년 3만 달러, 2009년에 7만 달러 가량의 커피가 수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 2008년 0.02%, 가장 최근인 2009년은 0.03%로 파악됨

### 2. 한국산 선호도

- 기본적으로 한국산 커피는 인스턴트커피만 수입되고 있으며, 전량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음
- 즉, 호주 현지인 시장에서 한국산 커피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으며 일부러 찾는 사람도 거의 없음
- 일단 호주인들의 인식에 커피라고 하면, 유럽과 남미산 제품만 떠오르기 때문에 판단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커피에 대한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경쟁국 대비 장단점

#### 가. 한국산 커피의 장점

- 제품 종류가 다양함

- 인스턴트커피를 중심으로 Ground Coffee는 물론 캔 커피까지 많은 종류의 커피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여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접근할 수 있음
- 현재 호주시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캔 커피는 한국과 일본 제품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본 캔 커피의 경우도 한국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본 식품점에서만 판매되고 있음

### 나. 한국산 커피의 단점

- 호주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음
- 인스턴트커피만 한국식품점 위주로 판매되고 있음
- 마케팅 부재
  - 한국산 커피를 호주 시장에 판매하려면 먼저 한국산 커피에 대한 인식을 호주시장에 심어 줘야 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4. 경쟁국 마케팅 사례 및 전략, 시사점 등

### 가. 경쟁국 마케팅 사례

- 호주 : Gloria Jeans
  - 현재 호주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전문점으로서, 2011년 현재도 TV를 통해 꾸준히 광고를 하고 있음
  - 광고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음
  - <http://www.gloriajeanscoffees.com.au/footer/tvc.aspx>
- 스위스 : Nescafe TV 광고
  - 꾸준히 TV 광고를 펼치고 있으며, TV 외에 잡지와 길거리 광고판을 통해 항상 광고를 하고 있음

- 이탈리아 : 다수의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매장
  -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수입과 매장 운영을 병행하면서 매장을 늘려 나가고 있음
  - 특히 가게와 제품 이름에서도 이탈리아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고, 유럽 커피를 처음 들여온 사람들이 이탈리아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이탈리아 커피는 고급커피 또는 원조커피라는 이미지가 강함

#### 나. 시사점

- 한국 커피 제품은 남미나 이탈리아 등 유럽과 같이 커피라는 제품과 그 느낌이 기본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호주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기본적으로 호주의 식품 산업 광고비용은 총 매출액의 6.5%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커피나 차 분야에서는 더 많은 광고 투자가 병행되어야 함
  - 이는 기존 대형업체 또는 틈새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소형 업체들의 마케팅 활동이 다른 식품에 비해 더욱 활발하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임

## 8.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 1. SWOT 분석

#### 가. 강점(Strength)

- 한국제품의 강점으로는 제품 종류의 다양성과 독특함을 들 수 있음
  - 이미 호주 시장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Ground Coffee 시장이나 Nestle가 장악하고 있는 인스턴트커피 보다는 호주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캔 커피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임

#### 나. 약점(Weakness)

- 일반적으로 커피라고 하면 오래 전부터 남미 또는 이탈리아 등의 유럽산 커피를 떠올리게 되고, 실제로 이들 커피가 호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소비자들에게는 커피와 한국과의 이미지 연상이 쉽게 되지 않음
  - 이는 마치 영국산 김치를 한국에서 마케팅 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임

#### 다. 기회(Opportunity)

- 호주 시장에 없는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캔 커피와 같은 호주시장에 없는 제품이나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개발해서 접근해야 할 것임

#### 라. 위협(Threat)

- 한국 제품이 호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위협 요소가 없음
  - 다만 이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존재감이 없다는 점과 신규 업체의

진출에 마케팅 비용을 비롯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 한국 커피의 호주 시장 진출 위협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2. 수출 확대 방안

### 가. 현지 바이어 의견

- 여러 곳의 커피 수입업체를 접촉하였으나, 한국산 커피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한 곳도 없어 반응 파악이 불가능함

### 나. 마케팅 전략

- 앞서 언급했듯이, 커피 시장은 새로운 업체가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분야임
  - 이는 Nestle를 비롯한 외국 대형 업체와 이탈리아 등의 중소 커피 수입업체들이 시장을 오래 전부터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임
- 현실적으로 기존 제품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제품으로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한 광고 활동 또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스폰서 활동 등을 통한 마케팅이 오랜 기간 선행되어 한국 제품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이 필수일 것으로 판단됨

## 9. 기타

### 1. 관련 웹사이트

#### ☐ Australian Coffee Traders Association Inc.

- 호주 커피 수출입 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협회로서, 제품 표준 및 프로모션, 제품 홍보 등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음 ([www.acta.org.au](http://www.acta.org.au))

#### ☐ AustralAsian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 커피 전문가들이 2001년에 설립한 비영리 협회로서, 커피에 관심 있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현재 American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그리고 European Specialty Coffee Association과 연결이 되어 있음 ([www.aasca.com](http://www.aasca.com))

#### ☐ Australian Subtropical Coffee Association (ASTCA)

- 호주 커피 재배농가들이 설립한 협회로 호주아열대커피(Australian Subtropical Coffee) 산업에서는 최고 협회임 ([www.astca.org](http://www.astca.org))

#### ☐ Australian Coffee Trees

- 호주 커피나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임 ([www.australiancoffeetrees.com.au](http://www.australiancoffeetrees.com.au))

#### ☐ BeanScene

- 호주 커피업계 관련 잡지 ([www.beanscenemag.com.au](http://www.beanscenemag.com.au))

#### ☐ Coffee Roasters Australia

- 커피 로스팅 기계 공급업체 ([www.coffeeroasters.com.au](http://www.coffeeroasters.com.au))

- 주요 업체 웹사이트
  - 다음 2항의 '관련업체 리스트'를 참고 바라며, 여기에서 각 제품별 가격 정보도 입수할 수 있음

## 2. 관련업체 리스트

- 1) 현재 호주 시장에 진출해 있는 대형 브랜드 몇 곳과 Ground Coffee 등을 수입, 판매하는 이탈리아 커피 수입업체 몇 곳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음

### 가. Nestle Australia

- 호주에서도 인스턴트커피 시장은 Nestle Australia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이 업체는 커피뿐만 아니라 각종 과자 및 음료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2007년 식품, 음료 매출액이 AS2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식품 서비스를 포함한 호주 전체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1.8% 증가한 AS26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
- 호주 인스턴트커피 시장에서의 Nescafe 제품 점유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Blend 43, DeCaf, Espresso, Gold 등 4가지 브랜드의 인기에 힘입은 결과임
- 다음은 2003-2008년 사이, Nestle Australia의 매출액 및 세후 이익의 연도별 변동 상황을 파악한 자료임

Nestle Australia, Financial Performance as at 31 December 2008

Year	\$ million Revenue	% Growth Growth	\$ million NPAT	% Growth Growth
2003	2381.6	N/C	102.9	N/C
2004	2408.9	1.1	135.6	31.8
2005	2450.1	1.7	50.9	-62.5
2006	2523.6	3.0	60.0	17.9
2007	2569.1	1.8	94.8	58.0
2008	2652.4	3.2	86.5	-8.8

출처 : IBIS World



## 나. Moccona

- 오랜 역사를 지닌 네덜란드 업체로서, 1966년 호주에 진출하여 현재 식품점과 할인매장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
- 식품 할인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Nescafe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들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브랜드임
- 웹사이트 : [www.moccona.com.au](http://www.moccona.com.au)

## 다. Primo Products

- Ground/Roasted 커피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1990년 설립된 호주 업체임
- 현재 카페, 슈퍼마켓, 커피 전문점, 식품 할인매장 등을 통해 여러 종류의 커피를 공급하고 있음
- 주소 : 468-470 Victoria Street, Wetherill Park, NSW 2164
- 전화 : 61-2-9616-3555
- 팩스 : 61-2-9756-2081
- 이메일 : [mail@completcoffee.com.au](mailto:mail@completcoffee.com.au)
- 웹사이트 : <http://completcoffee.com.au>
- 종업원수 : 15명

2) 다음은 호주의 커피 관련 협회인 ACTA(Australian Coffee Traders Association Inc)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커피 수입 업체들임

## 가. Aromas Tea and Coffee Merchants Pty Ltd

- 호주 북동부 Queensland주의 Brisbane에 있는 업체로서, 커피 수입 뿐만 아니라 커피 매장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호주 외에 인도의 뭄바이에도 5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매장 수를 더 늘릴 계획임

- 주소 : 60 Alexandra Place, Murarrie, Queensland 4172
- 전화 : 61-7-3393-9324
- 팩스 : 61-7-3393-9325
- 이메일 : info@aromas.com.au
- 웹사이트 : www.aromas.com.au
- 설립년도 : 1982년

#### **나. Bay Coffee**

- 시드니를 비롯한 New South Wales주 전역에 16개의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직접 커피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신의 매장 및 다른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 주소 : Grosvenor Lane, Neutral Bay, New South Wales (메인 매장)
- 전화 : 61-2-9953-6215
- 이메일 : elizabeth@baycoffee.com.au
- 웹사이트 : www.baycoffee.com.au
- 설립년도 : 1997년

#### **다. Belaroma Coffee Roasting Company**

- 호주 전역에 10개의 커피 매장과 시드니에 커피 학교(Coffee School)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수입한 커피 원료를 현지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주소 : 35 Roseberry Street, Manly Vale, New South Wales 2093
- 전화 : 61-2-9948-0221
- 팩스 : 61-2-9907-9469
- 이메일 : info@belaroma.com.au
- 웹사이트 : www.belaromacoffee.com.au

## 라. Vittoria Coffee

- 호주 최초로 이탈리아 커피를 공급한 업체로서, 1958년부터 호주에서 커피를 직접 Roasting하였고 현재는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한국, 캐나다, 피지,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호주의 웬만한 커피숍이나 커피 전문 매장에 커피를 공급하고 있고, 대형 식품 할인 매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함
- 인스턴트커피를 제외한 Roast Coffee 시장에서 최고의 업체 중 하나임
- 주소 : 118 Wetherill Street, Silverwater, New South Wales 2128
- 전화 : 61-2-9748-0299
- 웹사이트 : [www.vittoriacoffee.com](http://www.vittoriacoffee.com)
- 설립년도 : 1947년

## 마. Cofi-Com Trading Pty Ltd

- 고급 커피콩(Green Coffee)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로서, 현재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에도 판매를 하고 있음
- Green Coffee는 현재 세계 25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소 : 67 Ryedale Road, West Ryde, New South Wales 2114
- 전화 : 61-2-9809-6266
- 팩스 : 61-2-9809-6274
- 이메일 : [info@coficom.com.au](mailto:info@coficom.com.au)
- 웹사이트 : [www.coficom.com.au](http://www.coficom.com.au)

## 바. Piazza D'Oro

- 총 26개의 현지 식품 공급업체에 커피를 공급하고 있음. Espresso 커피를 주로 수입하여 현지 고급 커피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소 : 35-37 Ryde Road, Pymble, New South Wales 2073
- 전화 : 1800-833-767
- 이메일 : customer.DECS@saralee.com
- 웹사이트 : www.piazzadoro.com.au

#### 사. Grinders Coffee

- 호주 남부 Victoria주에서 1962년에 설립된 업체로 2004년 Victoria주 Fairfield에 Coffee Roasting 공장을 설립하여 수입된 커피를 현지에서 직접 Roasting하고 있음. 또한 Roasting 뿐만이 아니라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도 함
- 주소 : 50 Sparks Avenue, Fairfield, Victoria 3078
- 전화 : 1300-476-377
- 팩스 : 61-3-9481-1622
- 이메일 : melbourne@grinderscoffee.com.au
- 웹사이트 : www.grinderscoffee.com.au

#### 아. Merlo Coffee

- 1958년부터 Queensland주에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하였지만, 1992년에 비로소 직접 매장을 열어 판매도 하기 시작하였음
- 주소 : 10 Thompson Street, Bowen Hills, Queensland 4006
- 전화 : 61-7-3620-4200
- 팩스 : 61-7-3620-4205
- 이메일 : info@merlo.com.au
- 웹사이트 : www.merlo.com.au

#### 자. Mocha Coffee

-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시작한 대부분의 다른 업체와는 달리 이 업체는 그리스계 이민자 출신의 사장이 1987년 설립한 업체임

- 주소 : Unit 5, 13-21 Cadogan Street, Marrickville, New South Wales 2004
- 전화 : 61-2-9565-5227
- 웹사이트 : www.mochacoffee.com

### 3. 한국 구제역 관련 사항

#### 가. 관련 사항

- 한국 구제역 발생 여파로 호주에는 고기, 우유, 계란 등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한국으로부터 들여오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호주 검역원(Quarantine)과 각 지역 Council(구청)에서 이원화된 제품 수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검역원에서는 조사원(Inspector)이 한국식품 수입, 도매상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관련된 모든 제품을 수거하고 있고, 지역 구청에서는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소매상을 찾아다니며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있음
  - 특히 일반적인 검사 때와는 달리, 한국 통역관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영문 라벨링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제품이 제조될 때 붙는 라벨링까지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철저하게 제품을 수거중임
- 이미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냉동제품(고기) 중심으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냉동되지 않은 제품(커피)까지 수거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음
  - 그러나 통관 단계의 제품은 냉동제품뿐만 아니라 과자, 음료수, 빵, 커피 등 고기나 우유가 포함된 모든 관련 제품이 세관에 묶여 있음
- 세관 검사 역시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한번 묶이면 관련 제품을 선별하기 위해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향후 수입품목을 재편성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커피의 경우 유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블랙 캔 커피만 수입되고 있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세관에 묶여 있다고 함. 한국산 커피가 대부분 인스턴트커피나 캔 커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파동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됨
- 유제품이 함유되지 않은 Ground Coffee는 현재 아무 문제없이 수입되고 있지만, 구제역 관련 제품 검사로 인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품들의 통관이 현재 매우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 고부가 가공식품 수출여건

### || 커피류 ||

발행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일 : 2011년 6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조사참여 : 중국 - 상하이 aT센터

호주 - KOTRA 시드니 무역관

총괄 및 조사 - 식품수출정보팀(사원 오유경)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9

본 자료는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 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